



2009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의 관광산업 신성장모델

A New Growth Model of Tourism for Low-carbon Green Growth

금기용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의 관광산업 신성장모델

A New Growth Model of Tourism for Low-carbon Green Growth

2009

■ 연구진 ■

연구책임 금 기 용 •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
연 구 원 서 위 연 •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지구환경문제에 대처하는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저탄소 녹색 경제성장’ 개념이 본격적으로 대두
 - 이는 과거 경제성장 모델과 그 결과로 나타난 지구환경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한 반발과 아울러 새로운 접근방법을 시사
- 기존 관광산업의 성장모델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으로 볼 때 친환경적 의미가 상당히 퇴색
- 이 연구는 자연자원과 문화자원 활용을 중심으로 한 기존 관광산업의 성장모델을 새로운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에 맞춰 관광산업의 새롭고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모색하는 것이 주목적

II. 사회경제적 패러다임 변화와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

1. 지구환경 문제는 경제성장 모델과 밀접한 관계

- 경제학 사조의 양대 산맥은 서로 대립된 경제성장 모델을 형성
 - 주류 경제학파들이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의 흐름을 주도
 - 양대 경제학파인 자유주의학과와 케인즈학과는 각각 생산중심주의(productivism)와 소비중심주의(consumerism)라는 경제성장 모델을 형성하면서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의 흐름을 주도

- 생산중심의 경제성장 모델은 환경문제의 근원
-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경제성장 모델의 접근방식 차이
 - 신자유주의학과파의 생산중심 경제성장 모델은 사후 저감방식 환경대책에 중점
 - 생산주의는 생산 확대에 의한 환경오염이나 훼손을 저감하는 대책 (end-of-pipe approach) 위주로 환경문제 대응
 - 신케인즈학과(네오케인지언)의 소비중심 경제성장 모델은 사전예방방식 (upstream approach) 환경대책에 초점
 - 소비중심 경제성장 모델은 소비자의 선호에 맞추되 기존의 소비확대 보다는 환경문제 발생을 극소화하는 새로운 소비 창출을 유도
 - 기존 경제성장 모델의 틀을 벗어나 환경문제에 부응하는 새로운 기술 과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추가로 유효 수요와 소비를 창출

〈표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학 패러다임 변화

Economy	Paradigm shift	
	1980s - 2008(금융위기)	→ 금융위기 이후
Mainstream	Neo-classical(neoliberalism)	Neo-Keynesian
Issues	- 보이지 않는 손 → 시장주의 - 자유방임, 작은정부-큰시장 - 통화주의 - 민영화, 규제완화, 세금인하	- 정부의 시장개입 - 재정, 화폐공급 등 유동성 조절로 경기 변동 대처 - 국유화, 공영화
Growth model	생산중심(Productivism) - 생산극대화도 수요를 창출 - 기업의 생산확대로 경제성장(공급경제학)	수요중심(Consumerism) - 한계수요 확대도 경제성장 - 수요관리로 경제변동조절(수요경제학)
Actions	- 통화금리정책 (저금리 → 기업투자증가 → 고용확대)	- 재정정책 → 유효수요 증대 - 불경기에 적자재정

2.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필요조건

- 환경주의는 생산중심 경제성장 모델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
 - 환경문제는 공급 위주 양적 경제성장 추구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결과로 신자유주의가 옹호하는 시장의 실패로 대두
 - 초기 환경주의(environmentalism)는 고비용(자원과 환경) 산업화 과정에서 훼손되고 고갈되어온 우리 생활권 내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보전과 생활권 밖의 생태계 보전에 관심
 - 환경주의는 1980년대 생산공급 중심의 양적 경제성장 모델에 대한 회의와 포스트모더니즘적 사상적 조류가 맞물리면서 시민단체(NGO)들 중심의 환경운동이 발단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환경주의 패러다임도 변화
 - 환경이슈에서의 패러다임 변화는 경제성장 모델의 변화에 기인
 - 신자유주의학파의 공급중심 경제성장 패러다임에서 네오케인지언의 소비중심 패러다임으로 변화되면서 환경 분야 패러다임도 변모
 - 후기 환경주의(post-environmentalism)의 키워드는 저탄소 녹색성장
 - 저탄소 녹색성장의 의미는 환경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접근 방법으로 바꾸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유효수요도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기 위한 정책적 방향
 - 그 예로 초기 환경주의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자동차 엔진의 연료효율과 배기가스 저감기술에 관심을 두었다면 후기 환경주의는 새로운 방식의 전기차나 연료전지차와 같은 새로운 수요 창출을 중시
 - 초기 환경주의 때와는 다르게 후기 환경주의 때는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 환경문제를 주도

〈표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환경 패러다임 변화

Environment	Paradigm shift	
	1980s - 2008(금융위기)	금융위기 이후
Mainstream	Environmentalism	Post-environmentalism
Issues	- Anti-pollution - Eco-friendly - Eco-economy	- Anti-climate change - Earth-friendly - Low-carbon economy
Motive	Market failure + 생산확대 - ecological sustainability - social justice - Participate democracy - Anti-globalization	Market failure + 수요창출 - Effective demand 확대 - 시장개척 → 수요/투자확대 : Hard-infra → Soft-infra (저탄소 환경기술)
Initiative	Grassroot, NGO	정부 & 기업(제조, 금융, 서비스 등 다방면)
Actions	- 친환경(eco-friendly) 생산 - 에너지 절약 ex) 오염정화, 연료절감, 유기농재배	- 저탄소 녹색제도/경영/소비 - 대체&신재생에너지, 오염방지 ex) 전기차, 태양열, 풍력

Ⅲ.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의 관광산업 신성장 모델 필요성

1.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적신호

○ 관광산업의 친환경적 의미가 퇴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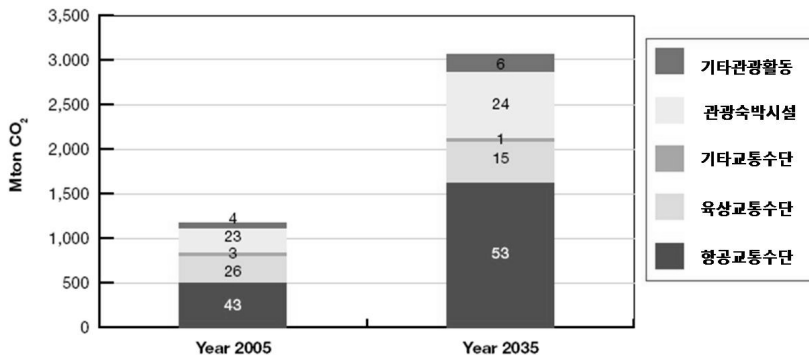
—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 속의 관광산업은 오염배출 산업

- 과거 관광산업은 ‘굴뚝이 없는 공장’이라 불리우며 친환경적인 산업으로 분류

- 그러나 저탄소 녹색 패러다임의 기준으로 볼 때 기존 관광산업은 대부분 에너지 집약적이고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산업으로 전략

— 관광산업의 경우 주로 이동수단과 숙박시설 등에서 온실가스를 배출

- UNWTO/UNEP/WMO의 2008년 발표 자료에 의하면 관광산업이 배출하는 CO₂ 양은 전세계 CO₂ 배출량의 약 5%를 차지하며 이 상태가 계속될 경우 향후 10년마다 그 비율이 두 배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



자료: UNWTO, 2008, "Climate Change and Tourism".

〈그림 1〉 세계관광산업의 CO₂ 배출현황 및 향후 예측

2. 사회경제적 패러다임 변화는 관광산업의 기회이자 생존 과제

○대중관광(mass tourism)과 생산중심 경제성장 모델은 서로 유사

—과거 대중관광은 관광수요의 양적 확대를 의미

- 대중관광이 생산중심 경제성장 모델(productivism)과 유사하게 환경에 부작용을 초래
- 관광지 개발, 많은 관광객과 원주민 이동은 현지 환경과 전통문화 훼손, 주민들과의 갈등 등 역기능도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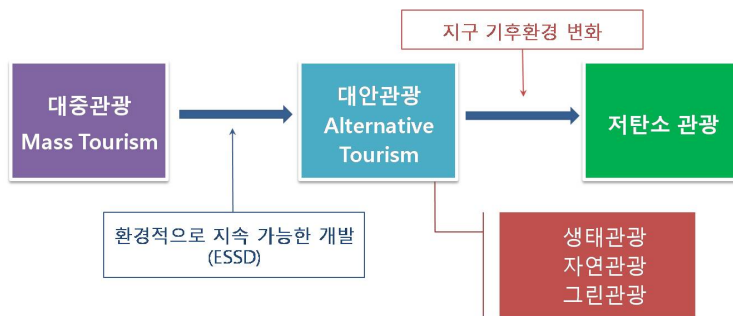
—생산중심 경제성장 모델은 환경문제의 근원

- 생산중심 성장모델은 생산 극대화를 위해 자원에 대한 과수요를 발생 시키며, 지구환경에 치명적인 부산물을 내보내면서 생태계 파괴, 기후 변화 등과 같은 환경문제를 심화

○대안관광(alternative tourism)은 초기 환경주의에 부응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의 모델

—8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 환경문제 이슈가 확산되면서 관광분야에서도 친환경적 대안관광 개념이 등장

- 생태관광, 그린관광, 관광농업 등과 같은 친환경적 관광모델과 교육관광, 헬스관광, 체험관광과 같은 개인복지 추구형 관광모델 등이 포함되는 개념
- 이는 미시경제적으로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소비자들의 욕구와 수요에 부응하고, 거시적으로는 친환경적인 국제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등장한 관광성장 모델



〈그림 2〉 대중관광에서 저탄소관광까지 관광 패러다임 변화

- 근래의 로하스(LOHAS,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관광은 후기 환경주의의 저탄소 녹색성장 흐름에 부합
 - 로하스관광은 개인의 건강(웰빙)을 생각하고 동시에 생태계 및 지구환경의 웰빙까지 고려하여 친환경적 관광과 상품을 소비하는 개념
 -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생산중심(productivism)에서 소비중심 경제성장(consumerism) 패러다임으로 변모하고 있는 추세에 부합
 - 로하스란 ‘건강과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생활스타일’을 추구하는 소비자 집단을 의미
 - 저탄소 녹색성장과 로하스관광을 잘 융합할 경우 관광산업의 블루오션을 창출할 가능성 증대
 - 로하스관광 패러다임은 아직은 환경주의와 후기환경주의 개념을 동시에 포함하며, 저탄소 녹색성장과 로하스관광은 서로 잘 어울리는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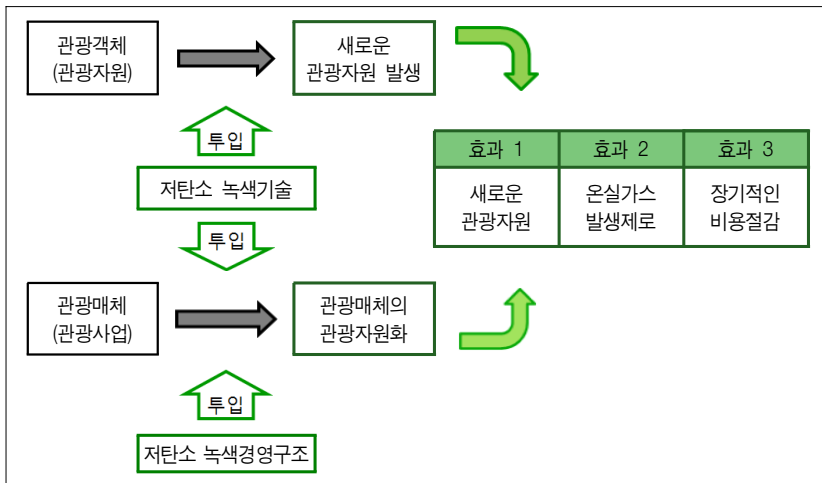
〈표 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관광 패러다임 변화

Tourism	패러다임 변화	
	1980s - 2008(금융위기)	→ 금융위기 이후
핵심 개념	웰빙(Wellbeing) (물질적, 정신적, 개인적)	로하스(LOHAS) (기능적, 이타적, 사회적)
성장 모델	자연 및 문화자원 활용 - 생태 및 문화관광 - 여가 및 휴양관광	과학·기술·지식·감성자원 활용 - 지식, 첨단기술 관광 - 사회, 교육 관광 - 참여, 체험 관광
전략	새로운 관광산업 성장 전략 ⇔ 저탄소 관광산업	

3. 관광산업 신성장 모델은 결국 저탄소 관광

○저탄소 관광은 기존과 다른 관광자원 및 상품을 창출

—기존 관광이 자연 및 문화자원을 단순히 이용하는 형태라면 저탄소 관광은 저탄소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관광자원이나 상품을 이용하는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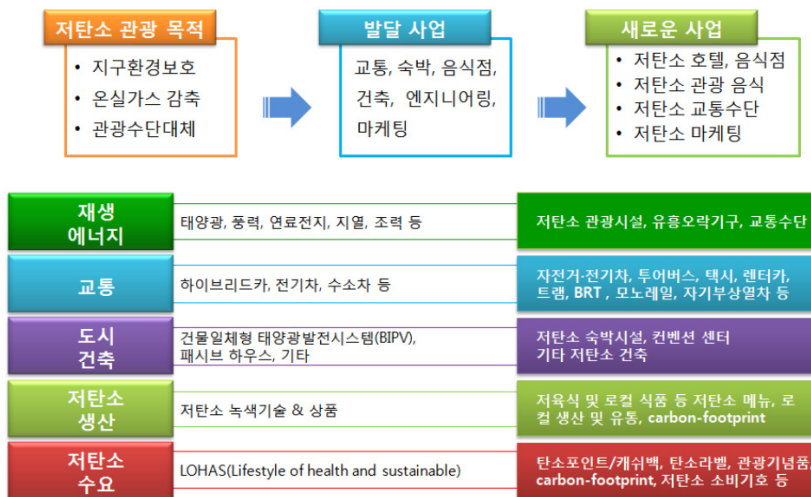
〈그림 3〉 저탄소 관광산업 개념

- 저탄소 관광산업의 사업체들은 새로운 기술과 마인드가 필요
 - 매체역할을 하는 관광사업의 경우 기존에 관광객들이 단순히 숙식을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저탄소 기술과 저탄소 경영마인드를 접합할 필요
 - 저탄소 관광에 있어 가장 절대적인 수단 중 하나는 녹색기술
 - 저탄소기술(low-carbon technology)을 관광에 적극 이용하는 것이 핵심이며 기존 관광과 차별화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
 - 이러한 GT(예측 기술, 에너지원 기술, 고효율화 기술, 사전예방 기술 등)에 IT·BT·CT·KS(knowledge service, 지식서비스) 등의 기술을 융합하여 적용

4. 저탄소 관광은 관광 시스템의 대변혁을 요구

- 저탄소 관광의 성장을 위해서는 모든 관광요소의 변화가 필수
 - 새롭게 제시되는 저탄소 관광은 관광에 투입되는 모든 요소에 저탄소 기술과 저탄소 경영기법 등을 적용
 - 궁극적으로 새로운 관광자원을 창출하고 지구환경 위해요소들의 발생을 저감하는 차원을 넘어 발생제로가 목표
 - 저탄소 관광 시대의 관광산업은 교통, 숙박, 음식점 등 기존의 관광사업과 중첩되지만 그 형태나 요소들이 전과 다르게 교체되거나 변경
 - 종래와는 다르게 건축기술자, 엔지니어, 과학자, 경영스태프 등 이전의 간접적인 후방지원(back-of-the-office) 구성원들까지 직접적인 관광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
- 저탄소 관광 기술은 자체로 혁신적인 관광사업과 수요를 창출
 - 건축기술이나 엔지니어링 등 융합기술이 관광산업에 투입되어 기존 관광산업의 경관을 혁신적으로 변모
 - 신재생에너지는 관광활동에 필요한 탄소프리 에너지를 제공

- 저탄소 관광 교통수단을 적용할 때 기존시설 개조보다는 새로운 방식의 교통수단으로 기존 내연기관을 교체
- 저탄소 관광 기술이 도시와 건축물을 만나면 저탄소 관광호텔, 컨벤션 시설 등이 탄생
- 이와 같은 저탄소 관광 기술은 새로운 관광사업과 수요를 창출



〈그림 4〉 저탄소 관광 비즈니스 모델

5. 저탄소 관광의 목표는 개인적이 아닌 대승적 차원

- 저탄소 관광의 목적은 개인적일 수 있지만 그 목표는 생태계보호, 온실가스 감축 등 대승적 차원
- 저탄소 관광 시대의 관광객과 사업자는 개개인의 웰빙을 우선시 하며 부수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을 추구하던 과거 패러다임 시대의 구성원들과 달리 지구의 웰빙을 더 생각

IV. 해외 저탄소 관광산업 사례

1. 저탄소 관광 운송수단

- 프랑스 파리의 ‘오토리브(autolib)’
 - 오토리브는 파리의 명물 ‘벨리브(Velib)’를 벤치마킹한 무인 전기자동차 대여 서비스
 - ‘오토리브’가 시민들의 자동차 소유 억제, 대기오염 개선,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고 관광상품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 호주 애들레이드의 ‘틴도(Tindo)’
 - 틴도는 세계 최초의 100% 태양전지로 생산된 전기로 충전하여 운행하는 버스
 - 무료로 운행 중인 틴도는 귀뚜라미를 닮은 친근한 외관으로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는 애들레이드시의 명물
- 기타 여러 나라에서도 저탄소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추세

〈표 4〉 도심 저탄소 관광 교통수단 도입 해외사례

국가명	도시명	내용
일본	도마야현	- 이산화탄소 배출량 1/10로 줄인 경전철 도입
	후쿠오카	- 그린 시티투어버스 운행
프랑스	파리	- 무인 전기자동차 대여 시스템 ‘오토리브’ 시행 계획
덴마크	코펜하겐	- 시티 바이크 프로젝트 - 무인 자전거대여 시스템을 이용한 친환경 교통정책
미국	샌프란시스코	- 대중교통수단 100% 전기나 바이오디젤 차량으로 교체 -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플러그인 인프라’ 설치
	포틀랜드	- 자동차를 공동 사용하는 ‘Zipcar’ 서비스 시행 - 도심 대중교통수단인 지상전차 스트리트 카 운행 - 에어트램(air tram) 운영
호주	애들레이드	- 100% 태양열 전기 버스 ‘Tindo’ 운행

2. 저탄소 관광 도시 랜드마크

- 미국 피츠버그의 랜드마크 ‘David Lawrence Convention Center’
 - 미국 빌딩위원회(GBC)가 세계 최초로 인증한 ‘녹색건물’로 지난 2009년 9월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그 건물과 도시의 품격을 동시에 높인 시설
-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모스코니(Moscone) 컨벤션센터
 - 개빈 크리스토퍼 뉴섬(Gavin Christopher Newsom) 시장은 샌프란시스코를 케이블카보다 전기자동차가 흔한 도시, 녹색 가치를 보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도시로 변화시키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
 - 미국내 공공건물 중 최대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갖춘 컨벤션시설
- 일본 후쿠오카의 녹색건물 ‘아크로스 후쿠오카’
 - 도심의 작은 산으로 보이는 13층 규모의 이 건물은 도심 열섬현상을 줄여 여름에 건물 수목녹음 속의 온도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15도 이상 하락
 - 이 건물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도 개방하고 있으며 건물 위층 전망대에 오르면 주변 시가지와 항구까지 내려다보이는 후쿠오카의 관광명소

3. 저탄소 관광 온라인 마케팅

- 영국의 공식 관광안내 웹사이트인 ‘enjoyEngland.com’ 내에서 ‘영국의 저탄소 여행’을 안내 홍보
 - 국가나 도시 관광안내 공식 웹사이트 상에 저탄소 관광과 관련된 홍보와 안내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 보스톤의 그린투어리즘 온라인 마케팅(www.bostongreentourism.org)
 - 관광객에게 보스톤의 환경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
 - 보스톤 녹색인증 호텔, 녹색음식점협회의 녹색인증 식당, 녹색인증 컨벤션센터 안내 및 홍보 등

V. 정책적 제언

1. 저탄소 관광의 조속한 산업화 추진

- 블루오션인 저탄소 관광은 시장 선점이 관건
 - 저탄소 관광은 단순 개념이나 슬로건이 아닌 현실 세계나 일상생활에 실제 적용하는 단계에 이미 진입

2. 저탄소 관광의 산업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 저탄소 기술 적용 사례에 대한 인센티브 기준 마련
 - 저탄소 적용 사례를 기존 에너지 절감률과 신재생에너지로의 대체율로 구분하여 전자보다는 후자에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
- 관광객 접객시설들을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BIPV), 풍력, 지열 등 저탄소 기술을 적용하는 ‘저탄소 건물’로 신축 및 개축 유도
 - 개축하기엔 내구연한이 많이 남아 있는 건물들을 저탄소 건물로 개축할 경우 허가요건을 완화해 주고 들어가는 비용에 상응하는 증축(용적률 상향 등) 허용 등으로 사업성을 올려주는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
- 저탄소 관광상품 및 서비스 구입에 따른 탄소 포인트/캐시백 제도 도입
- 탄소배출 제로 교통수단 보급 방안
 - 전기차나 연료전지 차량 구매 시 정부의 인센티브 외에 서울시 차원에서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

3. 저탄소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 첨단 저탄소 녹색기술을 적용한 관광상품 개발
 -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BIPV), 지열, 풍력 등을 이용하는 관광호텔이나 관광음식점, 컨벤션센터, 혹은 대체에너지를 이용하는 교통수단 자체가 저탄소 관광상품
- 서울시 관광안내 홈페이지에 ‘서울의 저탄소 녹색 투어’ 섹션 구축
- 특히 대체에너지를 이용하는 관광시설의 경우 관광객들에게 그 자체로서 볼거리와 체험하는 관광매력을 제공
 - 기존 관광호텔들이 영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 선에서 첨단 대체에너지 생산 빌딩으로 개조하는 프로젝트를 서울시와 협력하여 추진할 경우 관광객 유치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장기적으로 비용절감 효과가 큰 저탄소 녹색기술을 조기에 적용하도록 관광사업체들에 적극 홍보
 - 저탄소 녹색기술이 적용된 관광객 이용시설들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나 운영 시 별다른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투자비 회수 기간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당히 단축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제2장 글로벌 경제위기와 사회경제적 패러다임 변화	9
제1절 주류 경제학 패러다임 변화	9
1. 경제위기와 경제 패러다임	9
2. 생산주의 vs 소비주의 경제성장 모델	15
제2절 환경주의 vs 후기환경주의	18
1. 환경주의(environmentalism)	18
2. 후기 환경주의(post-environmentalism)	19
제3절 저탄소 녹색 성장과 관광 패러다임 변화	21
1. 웰빙관광 패러다임	22
2. LOHAS관광 패러다임	23
 제3장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성장모델	27
제1절 관광산업 성장모델	27
1. 기존 관광산업 성장모델	28
2.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대두	32
3. 기존 관광산업 성장모델의 한계점	36

제2절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진화	38
1. 저탄소 녹색성장 이슈	38
2. 저탄소 관광 이슈	41
3. 새로운 저탄소 관광의 대두	48
제3절 저탄소 관광	51
1. 저탄소시대의 관광산업	51
2. 저탄소 관광산업 신성장모델	55
제4절 해외 저탄소 관광 적용 사례	59
1. 저탄소 관광 자원화 분야	59
2. 저탄소 관광마케팅 분야	69
 제4장 정책적 제언	 75
 참고문헌	 81
영문요약	85

표 목 차

〈표 2-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학 패러다임 변화	15
〈표 2-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환경 패러다임 변화	21
〈표 2-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관광 패러다임 변화	24
〈표 3-1〉 관광산업의 분류	31
〈표 3-2〉 기존 연구에 나타난 생태관광의 정의	34
〈표 3-3〉 주요 국가의 녹색관광(green tourism) 용어 정의	35
〈표 3-4〉 관광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37
〈표 3-5〉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문화전략	43
〈표 3-6〉 저탄소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	45
〈표 3-7〉 UNWTO가 제시한 주요 온실가스 저감 방안	46
〈표 3-8〉 관광교통 분야 온실가스 저감방안	47
〈표 3-9〉 관광숙박 분야 온실가스 저감방안	47
〈표 3-10〉 관광 소비자의 실천방안	48
〈표 3-11〉 저탄소 녹색기술의 주요 영역	53
〈표 3-12〉 도시 내 저탄소 관광교통 수단 사례	62
〈표 3-13〉 저탄소 도시 해외 사례	68
〈표 3-14〉 호주의 에코투어리즘 인증 기준	72

그림 목차

〈그림 3-1〉 고대 관광산업 모델	29
〈그림 3-2〉 근대 관광산업 모델	29
〈그림 3-3〉 기존 관광산업 구조	30
〈그림 3-4〉 현대 관광산업 모델	32
〈그림 3-5〉 현대관광의 패러다임 변화	33
〈그림 3-6〉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주요 진행 경과	39
〈그림 3-7〉 기후변화에 관한 국내 논의	41
〈그림 3-8〉 기후변화와 관광에 관한 국제적 논의	42
〈그림 3-9〉 UNWTO의 'business-as-usual' 시나리오	48
〈그림 3-10〉 기후변화에 영향받는 주요 관광 목적지의 지리적 분포	49
〈그림 3-11〉 저탄소 관광산업 개념	51
〈그림 3-12〉 저탄소 관광산업	55
〈그림 3-13〉 저탄소 관광산업 비즈니스 모델	56
〈그림 3-14〉 파리의 벨리브와 대여전기차 오토리브(concept car)	60
〈그림 3-15〉 애들레이드 태양전기 버스	61
〈그림 3-16〉 세계 최초 태양광발전 전기버스(일본)	62
〈그림 3-17〉 미국 미즈버그의 저탄소 컨벤션센터 'David Lawrence Convention Center'	63
〈그림 3-18〉 미국 샌프란시스코 마스코니 컨벤션센터와 지붕 태양전지 패널	64
〈그림 3-19〉 세계최대 태양열 복합빌딩(좌)과 세계최초 전면 BIPV 호텔(우)	65
〈그림 3-20〉 도심 그린빌딩 - 아크로스 후쿠오카	65
〈그림 3-21〉 세계최대 태양발전 마을(좌)과 세계최대 수소연료 타운(우)	66
〈그림 3-22〉 영국 탄소제로 타운 베드제드(좌)와 독일 프라이부르크 바데노바 홈경기장 태양전지패널 지붕(우)	67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생산, 운송 등의 산업기술 개발로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주류로 이어져온 양적 생산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모델이 결국 자연생태계 파괴와 아울러 수질, 대기질 등 인간 생활환경 악화라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그러한 기존 산업성장 모델은 80년대에 시민단체(NGO) 주도의 환경운동이 대두되고, 그 영향으로 90년대부터는 국제기구에서 환경 문제를 다루면서 친환경적 정책과 생산모드로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함.
- 초기 친환경적 정책과 생산모드는 1992년 리우 지구정상(Earth summit)회담에서 채택된 ‘환경적 지속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나, 그 이후 20여년 동안 생산공급주의적(productivism) 성장모드는 지속되어 왔음. 그 결과 지구온난화를 가속시켜 자연 생태계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할 지구 기후변화 위기에 직면하게 됨.

- 환경문제에 대한 환경운동의 초기 접근 방법은 대체로 자연생태계와 생활 환경 보전 및 복원이라는 협소한 해석으로 인한 소극적인 대응에 그쳐 결국 지구의 기후변화 위기를 가공할만하게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대처하기 위해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저탄소 녹색 경제성장’ 개념이 대두됨. 이는 환경문제에 대한 이전의 협소한 인식과 소극적인 사후처리 접근방법(end-of-the-pipe approach)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근원적인 접근방법(upstream approach)으로 세계의 관심이 변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 또한 글로벌 기후변화와 2008년에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한 대안으로 저탄소 녹색 경제성장 개념이 급속히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산업 및 시장 선점을 노린 국제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지난 20-30년간을 지배해왔던 신자유주의적 생산주의 경제성장 모델(productivism)의 견지에서 볼 때 기존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공장’, ‘청정 산업’이라 불리우며 친환경적 산업으로 인식되었음. 그러나 근래 대두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으로 볼 때, 기존 관광산업의 성장모델은 많은 반환경적인 요소와 결과들로 인해 친환경적 의미가 상당히 퇴색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관광산업이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존속하고 단순 유행이 아닌 필연으로서 ‘저탄소 관광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역사적, 이론적 등장 배경과 그 의의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자연자원과 문화자원 활용을 중심으로 한 기존 관광산업의 성장 모델을 새로운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에 맞춰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모색하는 것이 주목적임.
- 이러한 목적을 위해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연구 이슈와 문제들을 통해 연구방향과 범위를 설정하면서 위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 경제이론과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는 환경주의와 관광의 패러다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들 부문 간 상관관계가 성립되는가?
 - ‘굴뚝 없는 공장’ 등 친환경 산업으로 인식되어온 관광산업은 향후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도 그 명목과 위상이 지속될 수 있는가?
 - 관광산업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에 맞는 새로운 성장모델이 가능한가?
- 이 연구를 통해 새로운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에 따른 새로운 저탄소 녹색성장 모델에 맞는 관광산업 성장모델을 모색하여 국가나 도시의 매력성과 경쟁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경제적, 사회적 환경변화 및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이론적, 철학적, 개념적 논의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분기점으로 하여 주류 경제사상의 전환 움직임 분석
 - 사회경제적 흐름을 주도하는 주류경제 패러다임과 환경운동의 새로운 모색으로 후기환경주의(post-environmentalism)에 대한 개념적 검토

- 세계 사회경제적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관광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및 가능성, 사회-경제-환경-관광 패러다임의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검토
-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 기존 관광산업 성장모델의 한계 및 대안 논의
 - 기존 ‘굴뚝 없는 청정산업’으로서의 관광산업에 대한 재해석
 - 친환경 관광에서 저탄소 관광(low-carbon tourism)으로의 변모 필요성
검토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관광산업의 신성장모델 구축
- 새로운 저탄소 관광산업 성장모델의 서울시 적용방안 논의
 - 저탄소 관광 정책, 상품, 마케팅 전략 모색
- 이 연구는 사회경제적, 환경적 패러다임 변화에 걸맞는 관광 분야의 패러
다임 변화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관광산업 성장모델을 모색하고
자, 기존 문헌자료 분석과 연구자의 가치판단, 그리고 논리적 근거를 중심
으로 한 이론적, 철학적, 개념적 연구방법을 채택함.

제2장 글로벌 경제위기와 사회경제적 패러다임 변화

제1절 주류 경제학 패러다임 변화

제2절 환경주의 vs 후기환경주의

제3절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광 패러다임 변화

제2장

글로벌 경제위기와 사회경제적 패러다임 변화

제1절 주류 경제학 패러다임 변화

1. 경제위기와 경제 패러다임

1) 경제학 사상의 윤회적 흐름

- 18세기 산업혁명으로 인해 체계적인 학문으로서 경제학 태동
 - 대략 15세기부터 17세기 동안 발생한 르네상스와 과학혁명이 산업혁명의 토대를 쌓았고, 산업혁명은 중세시대의 종말과 아울러 오랜 세월동안 세상을 움직이는 권력의 핵심에 있던 왕권과 신권의 쇠퇴를 초래해 근대 시대 도래의 기폭제가 됨.
 - 18세기 애덤 스미스에 의해 학문으로 체계화된 경제학은 시대사상을 반영하며 세상과 사회를 움직이는 하나의 시대 패러다임을 형성해오고 있음.
- 시대의 경제사상은 흥망성쇠를 반복하면서 진화
 - 애덤 스미스에 의해 시작된 경제학은 고전경제학, 신고전경제학, 케인즈 경제학, 신자유주의 경제학, 네오케인즈 경제학 등과 같은 당대 주류 경제사상들의 흥망성쇠를 통해 보다 새롭고 정교한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다양한 경제사상은 한 시대에 공존하면서 각자의 영역을 차지해 왔기보다는 당대의 주류, 비주류 학파를 형성하면서 각자의 설명력과 차별성 강화로 서로의 영향력을 교체하거나 교체되고 있음.

2) 주류 경제사상의 진화

(1) 고전경제학(classical economics)

○근대 경제학의 근원

- 18세기 이전의 경제이론을 집대성하여 체계화된 학문으로 경제학을 등장시킨 아담 스미스의 고전경제학 이론은 1920년대 케인즈가 등장하기 전까지 근대 경제학의 주류를 이루어왔음.
- 그의 저서 ‘국부론(1776)’은 경제학을 처음으로 이론, 역사, 정책에 도입하여 체계적 과학으로 만들었고, 특히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의 균형을 중시하여 경제주체의 합리적 행동과 시장의 가격기구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냈음. 그리고 이것은 정치적으로는 자유방임을 의미하였음.
- 또한 아담 스미스는 기존의 중상주의를 비판하고 분업, 가치, 수요와 공급 등 고전 경제학의 주요 개념을 확립했으며, 자유 무역을 옹호하였음.

○고전학과 이론은 산업혁명 이후 과잉공급으로 초래된 수급 불균형, 가격결정 등에 대한 이론을 제공

- 산업혁명 이후 서구 국가들에는 생산력이 발달해 생산만 된다면 시장에서 재화가 소비되는 경제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물질적 풍요로 경제적 호황기를 누리고 있었음. 그러나 양적 공급 확대 극대화는 수요가 포화상태에 다다르면서 병폐와 아울러 경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음. 고전경제학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갖고 등장함.
- 이 학파의 가격이론을 보면 시장가격은 일시적인 수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아 변동하므로 이를 이론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결국 중력에 끌리는 물체처럼 규칙적, 항구적인 가격에 근접한다고 보았고,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시장의 역할이라 함.

- 1870년대 이후 이러한 전통은 고전학과를 계승한 신고전경제학과(케임브리지학과)로 이어져 20세기초까지 근대경제학의 명맥을 유지함.

(2) 케인즈 경제학(Keynesian economics)

- 20세기 초 세계 대공황은 근대경제학 몰락의 계기
 - 1930년대 미국과 유럽에 몰아닥친 대공황의 경제위기에서 고전경제학파는 번번한 설명도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이론으로 몰락하게 됨.
 - 특히 1929년 촉발된 미국의 대공황은 10년 이상이나 계속된 사상 최악의 경제공황이었으며 대공황이 절정에 달한 1933년에는 실업률이 25% 이상에 달함.
 -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경제가 급속하게 팽창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주식시장 거품이 한꺼번에 꺼지면서 뉴욕 주식시장 붕괴로 세계적으로 대량 실업을 초래함.
 - 그러나 대공황으로 유발된 대량 실업에 대해 자유방임주의 고전학파의 유일한 해결방안은 임금하락을 통한 실업해결이었으나, 실상 미국에서 10년간의 공황 동안 명목임금이 33% 정도 하락하였음에도 실업은 줄어들지 않음. 이는 고전학파의 이론적 몰락 계기가 됨.
- 세계 대공황의 구세주로 케인즈 경제학 등장
 - 30년대 대공황 당시 케인즈가 제시한 처방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임. 즉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할 정도로 수요가 부진할 때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여 시장에 수혈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임.
 - 적자예산을 감수한 재정 확대라는 케인즈의 응급처방은 당시 미국 정부를 비롯한 해외 각국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이어져 실업난을 완화하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등 상당한 효과를 보게 됨.

-결론적으로 케인즈 경제학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공황을 겪은 많은 나라들의 경제정책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고, 미국과 영국 등 선진 국가들은 케인즈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하였는데, 그 요체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득평준화와 완전고용을 이룸으로써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것임.

○케인즈 경제학은 고전경제학을 대체하기 위한 이론으로 무장

-케인즈 경제학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혼합경제를 주장함. 이는 시장과 민간 부문이 국가의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 잘 작동한다고 주장하는 고전학파의 자유방임 주의적 자유주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이전의 고전학파가 생산공급을 통해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경제가 성장한다고 주장한 반면, 케인즈학파는 유효수요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와 투자가 유도되는 경제성장 모델을 주장함.

-한편 불경기 때 통화팽창 정책, 즉 유동성 확대로 소비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고전학파의 주장에 대해 케인즈학파는 금리인하로 시중에 유동성을 확대해도 실물경제(기업투자, 개인소비 등)에 다다르지 않아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유동성의 함정(liquidity trap)’ 주장으로 맞섬.

-실제로 케인즈 경제학은 이전 자유방임주의의 실패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공황경제학’이라 할 정도로 불경기 때 만병통치약 역할을 하며 난공불락으로 보이던 케인즈 이론은 1970년대 두 차례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고전경제학이 그랬던 것처럼 몰락의 길에 접어들.

-즉, 인플레이션이 유발한 불경기를 정부 재정투입을 통해 고용을 조절함으로써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는 케인즈 이론이 오일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에 따른 불경기에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주류 경제이론으로 등극한 지 반세기 만에 그 자리를 다른 이론에 넘겨주게 됨.

(3) 신자유주의 경제학(neo-classical economics)

- 신자유주의학파는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주장한 케인즈학파를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
 -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부터 케인즈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고전경제학파가 그랬던 것과 비슷하게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회생함.
 - 반세기 만에 회귀한 시장자유주의는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세계적인 불황이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함. 즉, 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은 케인즈 이론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이 실패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다시 세상으로 나온 것이 신자유주의 이론임.
 - 시카고학파라고 일컫기도 하는 신자유주의학파는 미국 닉슨 행정부의 경제정책 ‘Nixonomics’와 레이건 행정부의 경제정책 ‘Reaganomics’, 그리고 영국 마가렛 대처 내각의 경제정책 ‘Thatcherism’의 근간이 될 정도로 70~80년대 세계 주류 경제학 자리로 화려하게 복귀함.
- 신자유주의학파는 ‘세계화(globalization)’, ‘자유화(liberalization)’, ‘사유화(privatization)’라는 용어를 내세워 새로이 진화된 자유주의를 통해 세계 자유무역과 국제적 분업을 위한 시장자유화를 주도
 - 신자유주의는 예전의 자유주의와 같이 경제적인 자유를 추구하며 특히 자유시장, 규제 완화, 재산권 등을 중시함.
 -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의 개방을 자유무역과 국제적 분업(division of labour)으로 지칭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 개발은행(ADB)을 통한 다자 간 압력으로 시장 개방을 추진함.
 - 이는 고전학파 시대의 공급확대를 위한 식민지 개척 정책과 성격이 다르지만 맥락은 비슷한 글로벌 시장 개척 정책이라 볼 수 있음. 신자유주의 학파는 공장 및 제품 시장 개척뿐만 아니라 금융자본 및 서비스 이동의 자유화를 이전보다 보다 더 중시해 고전학파와 차이가 있음.

- 그러나 지나친 시장주의와 규제완화로 인해 갖가지 부작용이 나오자 이에 대한 비판이 크게 제기됨. 특히 금융 및 부동산 파생상품의 거의 무제한적이고 무절제한 거래는 결국 21세기 들어 또 다른 세계 경제위기를 초래함.

(4) 네오케인즈 경제학(neo-Keynesian economics)

- 18세기 근대 경제학이 태동한 이후 21세기 최근까지 세계 경제 위기를 수 없이 겪으면서 당대 주류 경제학파들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새로운 대안들이 서로 교차되고 있음.
- 특히,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그간 신자유주의적 시장 자유화 덕분에 불안정하고 검증되지 않았으면서도 규제 장치 없이 활개 치며 전 세계를 누비던 금융상품들로부터 기인된 것임.
 - 이러한 경제위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위기를 초래한 경제 이론을 대체하기 위한 이론적 도전에 직면함.
- 케인즈학파의 부활
 - 신자유주의자들이 20여년의 ‘작은 정부’와 ‘규제완화’, ‘사유화’ 등으로 부터 발생한 허점들이 이번 금융위기를 통해 드러나면서 각 정부는 케인즈식 처방들을 속속히 추진하고 있음.
 - 특히 금융규제 완화 등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금융회사 탐욕을 규제하는데 실패함으로써 금융기관들에 대한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과 국유화 등 강도 높은 정부개입이 초래됨.
 - 이 같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위기로 인해 케인즈학파는 네오케인즈 학자들 중심으로 위기관리 정책을 다시 주도하게 됨.

〈표 2-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학 패러다임 변화

Economy	Paradigm shift	
	1980s - 2008(금융위기)	금융위기 이후
Mainstream	Neo-classical(neoliberalism)	Neo-Keynesian
Issues	- 보이지 않는 손 → 시장주의 - 자유방임, 작은정부-큰시장 - 통화주의 - 민영화, 규제완화, 세금인하	- 정부의 시장개입 - 재정, 화폐공급 등 유동성 조절로 경기 변동 대처 - 국유화, 공영화
Growth model	생산중심(Productivism) - 생산극대화로 수요를 창출 - 기업의 생산확대로 경제성장(공급경제학)	수요중심(Consumerism) - 한계수요 확대로 경제성장 - 수요관리로 경제변동조절(수요경제학)
Actions	- 통화금리정책 (저금리 → 기업투자증가 → 고용확대)	- 재정정책 → 유효수요 증대 - 불경기에 적자재정

2. 생산주의 vs 소비주의 경제성장 모델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 경제흐름을 주도하는 주류 경제학과들은 경제 문제에 대한 양극화된 이론과 대안으로 각자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음.
- 그런 과정에서 그간 경제성장 모델이 주류 경제학의 여하에 따라 바뀌어오고 있음. 주류 경제학의 양대 산맥인 자유주의학과와 케인즈학과는 각각 생산중심주의(productivism)와 소비중심주의(consumerism)라는 경제성장 모델을 형성하면서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의 흐름을 주도해오고 있음.

1) 생산주의(productivism)

- 생산주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성장 모델
 - 신자유주의의 근간인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그리고 재산권 중시 등은 결국 생산자인 기업들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
 - 즉, 신고전학과를 계승한 신자유주의학과는 저금리 정책을 선호하는데 이는 감세정책과 아울러 기업투자 확대와 경영환경 개선으로 이어져 결국 고용확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임.

-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예상되는 수급의 텃과 환경문제 등 두 가지 부작용에 대한 해결대안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음.
- 생산 공급 위주의 경제성장 모델은 수급의 텃에 빠질 위험성
 - 기업투자 확대와 경영환경 개선은 생산량 극대화로 이어지면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소비도 비례적으로 확대되어야 하지만 근래와 같은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고용확대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수급의 텃에 빠질 위험성이 존재함.
 - 즉, 신자유주의적 성장모델에서 생산량 증가에 대한 수요 증가의 상당한 부분은 저금리 정책에 따른 소비확대(인플레이션)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는 단기적으로 경제성장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취약한 무효수요 증대라는 결과가 드러나게 됨.
 - 이번 미국발 세계 경제위기는 바로 그러한 저금리에 따른 통화량 확대로 생긴 가성적인 수요가 부동산에 몰려 거품을 만든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임. 일본은 90년대 초반에 그러한 부동산 거품이 빠진 상황을 이미 경험한 바 있음.
- 생산 공급 위주의 경제성장 모델은 환경문제를 심화
 - 지구의 자원은 한계가 있으나 생산중심주의자들은 지속적인 공급확을 위해 자원 착취와 고갈을 유발하고, 지구환경에 치명적인 부산물을 내보내면서 생태계 파괴,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를 발생시킴.
 - 실제 80년대 대두된 시민단체 주도의 환경운동은 그러한 생산주의 경제 성장의 병폐에 대해 기업과 정부에 경각심과 아울러 대책을 촉구하는 것임.
 - 그러나 초기의 환경운동은 생산주의에 경도된 정부 정책과 기업의 욕구,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해관계 등 걸림돌로 인하여 그 중요성이나 필요성이 글로벌 차원이나 사회 전반에 파급되는 데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 이 같은 생산 확대와 시장 확대로 이어지는 생산주의 경제성장 모델은 결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전적이고 근원적인 노력보다는 사후 방문

책(end-of-pipe) 위주로 추진되면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가속화해 지구환경 위기를 초래함.

2) 소비주의(consumerism)

- 신자유주의적 생산주의 경제성장 모델은 최근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그 타당성이 낮아지고 이를 대체하는 네오케인지언의 소비주의 경제성장 모델이 조명을 받음.
 - 네오케인지언들은 생산주의의 한계점인 유효수요 확대 실패와 환경문제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유효수요 확대에 관심의 초점을 두고 있음. 이는 예전에 케인지가 주장하던 재정금융정책으로 실질적인 고용확대를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하자는 성장모델과 맥락을 같이 함.
 - 특히 이 같은 성장모델은 불경기 때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유효수요 창출이라는 과제 아래에 새로운 수요와 잠재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그 예로 두 주류 경제성장 모델은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식에 차이
 - 생산주의는 생산 확대에 의한 환경오염이나 훼손을 저감하는 대책(end-of-pipe) 위주로 환경문제 대응(80~90년대 환경운동 조치)
 - 반면 소비주의 처방은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의 선호와 아울러 기존 소비 확대보다는 새로운 소비확대를 통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함. 즉, 기존 성장모델의 틀을 벗어나 환경문제에 부응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로부터 수요와 소비를 창출함(예, 신재생에너지 기술, 새로운 개념의 교통수단 등).
- 따라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모델은 바로 새로운 차원에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을 추구하는 것으로 신자유주의적 생산주의자들의 개념에서 벗어나 보다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라 할 수 있음.

제2절 환경주의 vs 후기환경주의

- 앞선 절에서 간단히 짚어 보았듯이 80년대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환경주의와 환경운동은 어떤 주류 경제 패러다임 속에서 추구된 경제성장 모델이나에 따라 그 방향도 양극화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최근 세계 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패러다임이 네오케인지언적 패러다임으로 변화된 계기가 됨. 그에 따라 경제성장 모델도 앞서 검토했듯이 생산중심주의에서 소비중심주의로 변화됨을 알게 됨.
- 이번 절에서는 경제성장 모델이 생산중심주의에서 소비중심주의로 바뀌면서 환경을 생각하는 패러다임과 대응 방안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기로 함.

1. 환경주의(environmentalism)

- 80년대 생산주의적 양적 경제성장 모델과 포스트모더니즘적 사상적 조류가 맞물리면서 환경주의가 대두되고 시민단체(NGO)들 중심으로 상향식(bottom-up) 접근방법을 시도
 - 그 결과 1992년 브라질 리우 UN 정상회담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이라는 개념이 공식적으로 국제정책으로 도입됨. 이는 사실상 정부나 기업들이 아닌 NGO들의 노력에 따른 결실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음.
- 초기 환경주의적 접근방법은 사후저감이 기본 방향
 - 사후환경대책의 접근방법은 산업화 과정에서 훼손되고 파괴되어온 우리 생활권 내의 대기질, 수질, 토양 등 물리적 환경에 대한 개선과 추가 훼손 저감, 그리고 생활권 밖의 생태계 보전을 통한 지구 생태계 다양성 확보가 핵심이었음.

- 이는 당시로서는 최선의 환경문제 해결방안으로 간주될 수 있었지만 보다 근원적이고 예방적인 노력은 거의 시도되지 않았음. 그 이유는 그러한 노력은 기존 생산주의적 성장모델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세수를 걱정하는 정부나 매출이나 비용에 악영향이 미칠 것을 걱정하는 기업들은 소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음.
- 이때는 오염방지(anti-pollution), 친생태계(eco-friendly), 생태경제학(ecological economics), 친환경 등이 주로 애용된 용어들이었음.
- 또한 기업이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친환경적 경영과 정책이, 소비자 입장에서 환경소비라는 명목의 에너지절약, 유기농 식품, 생활환경 오염 저감, 연료절약 등이 최선의 액션들이었음.
- 초기 환경주의의 태동 동기
 - 시민사회가 성숙하고 참여민주주의가 확대되면서 시민단체의 파워가 커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득권 세력에 대항하여 소수를 대변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시민운동 차원에서 환경이슈가 나타났음.
 -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는 생산공급 중심의 경제성장 추구로 나타난 환경적 부작용이 커지면서 신자유주의가 옹호하는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시장실패로 환경문제가 대두된 것임.
 - 따라서 이 당시 환경운동은 생산주의 경제성장 모델 하에서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으로 등장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그 당시 성숙된 시민사회에서 생각한 그러한 환경보호에 대한 철학적 기반이 기득권을 가진 정부와 기업들에게는 미약했음.

2. 후기 환경주의(post-environmentalism)

- 후기 환경주의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2년 밖에 되지 않은 최근의 움직임
 - 이는 거의 30년 동안을 유지해왔던 신자유주의적 경제사상이 서서히 그

한계점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환경이슈에 새로운 인식과 접근방법 추구를 위해 등장하게 됨.

—변화된 환경이슈들은 이전과는 다른 차별성을 두고 확대되고 있음. 즉 이전의 훼손방지보다는 보다 포괄적인 기후변화방지(anti-climate change), 동식물 생태계 보호에서 모두를 위한 지구환경 보호(earth-friendly), 그리고 보다 근원적이고 예방적인 저탄소 녹색성장(low-carbon green growth) 등으로 확대되면서 이전과는 스코프가 확연히 달라짐을 알 수 있음.

○그에 따른 실천노력은 저탄소 녹색제도·경영·소비 등으로 전환되고 있고, 기존 에너지 절약에서 차원을 달리하는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이 도처에서 목격되고 있음.

○환경이슈에서의 패러다임 변화는 경제성장 모델의 변화에 기인

—기존 신자유주의학파의 생산주의 패러다임에서 네오케인지언의 소비주의 패러다임으로 변화되면서 환경 분야에서도 그에 부응하는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즉, 환경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접근 방법으로 바꾸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유효수요도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된 것임.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면, 과거에는 연료효율 엔진과 배기가스 저감 기술 개발로 친환경적 경영을 했다면 지금은 온실가스를 배출저감이 아닌 발생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인 전기차나 수소연료전지차를 개발하게 된 것이고, 그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는 것임.

—그 때문에 초기 환경주의 때와는 다르게 후기 환경주의 때는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 환경문제를 주도하는 특이함도 찾아 볼 수 있음.

〈표 2-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환경 패러다임 변화

Environment	Paradigm shift	
	1980s - 2008(금융위기)	금융위기 이후
Mainstream	Environmentalism	Post-environmentalism
Issues	- Anti-pollution - Eco-friendly - Eco-economy	- Anti-climate change - Earth-friendly - Low-carbon economy
Motive	Market failure + 생산확대 - ecological sustainability - social justice - Participate democracy - Anti-globalization	Market failure + 수요창출 - Effective demand 확대 - 시장개척 → 수요/투자확대 : Hard-infra → Soft-infra (저탄소 환경기술)
Initiative	Grassroot, NGO	정부 & 기업(제조, 금융, 서비스 등 다방면)
Actions	- 친환경(eco-friendly) 생산 - 에너지 절약 ex) 오염정화, 연료절감, 유기농재배	- 저탄소 녹색제도/경영/소비 - 대체&신재생에너지, 오염방지 ex) 전기차, 태양열, 풍력

제3절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광 패러다임 변화

- 현대 경제학 패러다임은 과거 이데올로기적인 영향과 종교적 영향을 훨씬 증가하는 영향력과 권한을 가지고 글로벌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 이는 사회경제적 요소들이나 분야가 각기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서로가 열개로 네트워크가 된 것처럼 상호작용을 하면서 정방향이던 역방향이던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앞서 경제성장 패러다임과 환경 분야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공유되고 있는 부분이 많음을 파악한 바 있음.
- 이번 절에서는 사회경제적 개념과 흐름들이 관광분야와 어떻게 접목되고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함.
 - 이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이 관광분야에 어떻게 접목되어 패러다임 변화가 어떻게 공유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함.

1. 웰빙관광 패러다임

- 과거 대중관광(mass tourism)은 관광수요를 양적으로 확대하면서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
 - 일차적으로 관광목적지에서의 경제적 효과 증대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그 뒤에는 현지 환경훼손, 주민들과의 갈등, 그리고 각종 범죄와의 연루 등 역기능도 초래함.
 - 특히 80년대 이후 환경보전이라는 국제적인 이슈가 확산되면서 관광분야에서도 친환경 관광이라는 개념도입이 요구되었음.
- 대안관광(alternative tourism)은 특히 친환경 이슈에 부응하기 위해 나타난 관광 성장 모델
 - 대안관광은 미시 경제적으로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소비자들의 욕구와 수요에 부응하고, 거시적으로는 친환경적인 국제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등장한 관광성장 모델임.
 - 생태관광, 그린관광, 관광농업 등은 새로이 등장하여 각광받는 관광 모델이고 이는 다양한 관광모델들 중에서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교육관광, 헬스관광(의료, 보양, 휴양), 체험관광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웰빙관광(wellbeing tourism)은 과거 단순 쾌락이나 휴식 목적이 아닌 개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맞춤형 관광으로서 보다 정신적, 개인적 효용을 추구하는 관광 트렌드
 - 80~90년대 웰빙관광이 각광을 받게 된 계기는 바로 악화되는 환경문제라고 할 수 있음. 웰빙관광은 산업화 및 양적인 대중관광으로 생활환경이나 관광지 환경을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관광개발 방지, 줄어드는 쾌적한 관광목적지 보전, 귀중한 자연 및 생태 관광자원 보호 등을 위해 개념화된 관광임.
 - 당시에는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중심으로 한 자연생태관광, 문화관광, 쇼핑관광 등이 주를 이룸.

- 웰빙관광은 생산주의 경제성장 모델의 산실
 - 생산주의 경제성장 모델이 환경문제를 이슈화시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분야에서 등장한 것이 웰빙관광이라 할 수 있음.
 - 환경운동의 초기 노력들이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접근방법으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웰빙관광도 그러한 수준에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렇다면 경제성장 모델이 생산주의에서 소비주의로 변화된다면 관광형태도 웰빙관광에서 또 다른 형태로 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경제성장 패러다임 변화가 관광분야에 영향력을 발휘한 결과 웰빙관광과는 다소 차별화될 수 있는 LOHAS라는 관광트렌드가 등장하게 되었음.

2. LOHAS관광 패러다임

- 로하스(LOHAS)란 ‘건강과 지속성장을 가능케 하는 생활스타일(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이란 뜻의 영문약자로 통용되고 있는 용어로 친환경적이고 합리적인 소비패턴을 지향하는 소비자층을 일컫음.
- 로하스관광은 웰빙관광에서 진화된 대승적인 관광트렌드
 - 로하스관광은 개인의 건강(웰빙)을 생각하고 동시에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적 관광과 상품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함.
 - 로하스관광이 웰빙관광에서 진화되었다 하더라도 아직은 생산주의 경제성장 모델과 소비주의 성장모델 간의 전이단계에서 나타난 과도기적인 관광트렌드라 볼 수 있음.
 - 왜냐하면 로하스관광은 초기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웰빙관광과는 달리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관광이나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후기환경주의적인 관광 패러다임의 의미를 충분히 담고 있지는 않고 있음.

- 후기 환경주의에 부응하는 새로운 관광트렌드, 즉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는 관광행태 및 산업은 아직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고, 이론적, 개념적 정립도 전문가 사이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임.
- 이로써 주류 경제학적 이론 변천에 따른 시대적인 경제성장 모델은 그 부산물로 물리적인 환경문제를 발생시켰고 이러한 물리적인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산업에서도 그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노력이 지속되었음을 살펴보았음.
- 즉, 경제, 환경, 그리고 관광은 체계적인 관계로 서로 연계되어 있어 새로운 사회경제적 패러다임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대해 보다 근원적인 배경을 파악하여야 함을 알게 됨.

〈표 2-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관광 패러다임 변화

Tourism	Paradigm shift	
	1980s - 2008(금융위기)	금융위기 이후
Key pattern	Wellbeing (물질적, 정신적, 개인적)	LOHAS (기능적, 이타적, 사회적)
Growth model	Nature & Cultural resources - Ecological & cultural tourism - Leisure & relaxing tourism	Science, Technological, & Knowledge resources - Nature tourism - Techno & Industrial tourism - Edu-tourism - Social tourism, - Participation & experience tourism
Strategy	친환경/에코관광 전략 ⇨ 저탄소 녹색관광 전략	

제3장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성장모델

제1절 관광산업 성장모델

제2절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진화

제3절 저탄소 관광

제4절 해외 저탄소 관광 적용 사례

제 3 장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성장모델

제1절 관광산업 성장모델

- 21세기 들어 인류가 공통적으로 당면한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는 바로 환경문제로 인한 기후변화로 특정 지역이 아닌 인류의 위안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점임. 지난 20~30여년간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이 누그러지지 않고 심화된 것은 바로 행동을 지배하는 인류의 의식 패러다임이 변하지 않은 것에 인함.
- 환경의 희생을 통한 경제성장이 가져온 물질적 풍요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환경자원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증가를 가져왔음. 그같은 관광산업 성장은 더 많은 리조트, 도로, 철도, 항공기 수요로 이어져 또 다른 환경의 희생을 불러왔음.
- 관광산업은 태초부터 환경과 공생관계를 통해 발전되어 왔다는 점에서 대부분 제조업들과 다르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광 성장모델을 찾는 전략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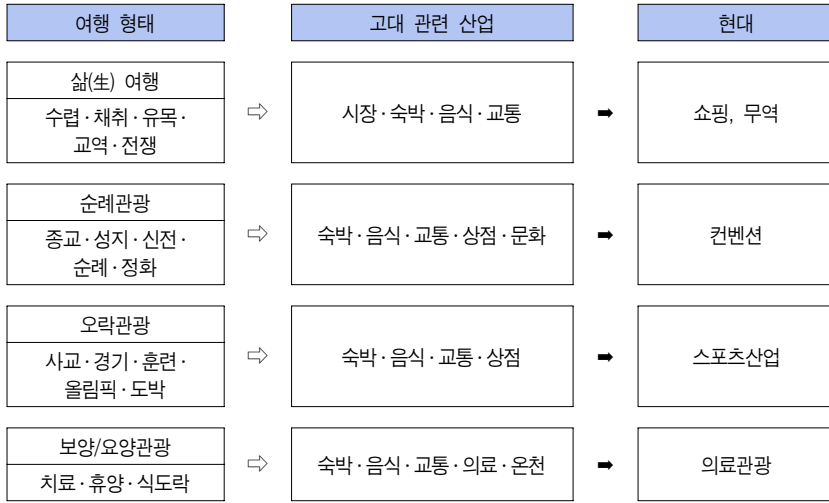
1. 기존 관광산업 성장모델

1) 관광산업의 발달

- 관광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같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인류역사와 함께 시작하였고 인류역사의 발달 과정에서 그 범위와 대상이 확대되었음.
- 관광의 근원은 유목시대 이후 새로운 목초지를 찾는 이동, 물물 교환, 이민족 침입 등 인간의 이동현상에서 찾아볼 수 있음.
- 관광산업의 발달 과정은 크게 고대, 근대, 현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시대의 관광 형태와 발달 사업 등을 살펴보면 생(생계형)관광, 종교관광, 휴양관광 등과 같이 시대에 따라 형태는 조금씩 변하지만 동일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형태가 있는 반면 시대의 요구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관광형태도 있음.

(1) 고대 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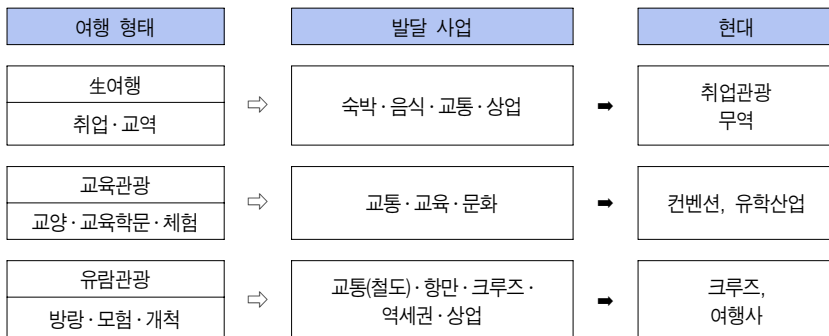
- 수렵, 채취, 유목, 교역, 전쟁 등 인류의 생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생계형 관광이 주를 이루었고 이러한 관광은 현재의 Business Tourism과 맥락이 같음.
-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미 신전순례 형태의 관광이 존재하였고, 그리스·로마 시대의 신전참배를 위한 관광이 오늘날 종교관광의 원형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올림픽 경기 참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오락관광의 형태가 존재하였고 온천지 등을 찾는 요양관광, 미식관광을 즐기는 식도락관광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관광이 존재하였음.



〈그림 3-1〉 고대 관광산업 모델

(2) 근대의 관광

- 르네상스 시대에는 귀족들의 교양과 견문을 넓히기 위한 관광이 유행하여 교육관광이 새롭게 등장하였고 귀족과 부유한 평민들의 지식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단체관광도 실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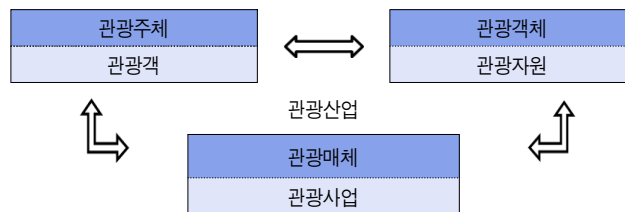


〈그림 3-2〉 근대 관광산업 모델

- 이 시대의 관광은 고대와 달리 종교적 동기보다 비즈니스나 지식욕, 호기심 등이 관광의 주된 동기가 됨.
- 또한 19세기 이후 교통·통신의 발달로 기차, 자동차, 선박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는 향후 대중관광 시대로 가기 위한 중요한 기초를 제공함.

2) 기존 관광산업의 구조

- 관광산업은 관광을 직접 실행하는 관광주체, 관광대상이 되는 관광객체, 그리고 이를 연결해주는 관광매체 등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됨.
- 관광은 관광주체인 관광객이 관광매체인 다양한 관광사업을 통해 관광자원을 소비하는 과정이며 때에 따라 관광매체를 거치지 않고 관광주체와 객체 간의 직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기도 함.



〈그림 3-3〉 기존 관광산업 구조

- 관광객체인 관광자원은 세 집단으로 나눌 수 있음.
 - 첫째는 자연적 관광자원으로 천연자원, 천문자원, 경관자원, 동식물 등 자연 지향의 자원을 말함.
 - 둘째는 사회·문화적 관광자원으로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종교적인 것과 관련된 그 지역의 독특한 모든 것을 포함함.
 - 셋째는 산업적 관광자원으로 공업단지, 유통단지, 광업소, 농장, 목장 등을 말함.

- 우리나라의 관광사업은 관광진흥법 제2장 제3조에 의해 분류되는데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 크게 7가지로 분류됨. 관광산업의 세부분류와 내용은 <표 3-1>과 같음.
- 기존의 관광산업 모델은 자연자원, 사회·문화자원 등 현존하는 자원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관광자원의 소모적인 이용으로 인한 자연자원의 훼손, 환경오염 등의 문제도 동시에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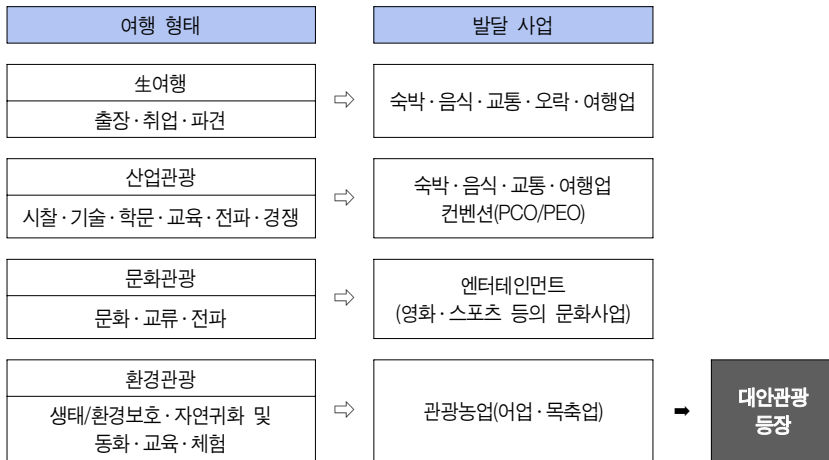
〈표 3-1〉 관광산업의 분류

관광사업 분류		내 용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 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시설 이용 알선이나 예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편의를 제공하는 업 -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으로 구분됨.
관광숙박업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추어 제공하는 업
	휴양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추어 제공하는 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문화, 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일
국제회의업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 준비, 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카지노업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 트럼프, 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의 등을 하는 업
유원시설업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편의시설업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2.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대두

1) 대중관광

- 현대관광은 대중관광(mass tourism)의 시대로 설명할 수 있는데 2차 세계 대전 이후 도시화, 공업화, 정보화 등의 사회적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고대, 근대의 관광이 일부 귀족들이 누리는 특권으로 여겨졌다면 현대관광은 일반 대중들이 즐길 수 있는 보편화된 상품으로 볼 수 있음.



〈그림 3-4〉 현대 관광산업 모델

- 여행이 보다 대규모화되고 조직적으로 발달하면서 전문 여행업체가 등장하였고, 국제교류가 활발해지고 컨벤션 등의 개최가 빈번해짐에 따라 전문 컨벤션 업체가 생겨남.
- 특히 이 시기의 후반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세계적인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관광산업에 있어서도 환경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2) 대안관광의 등장

- 기존 대중관광이 대규모로 일률적인 목적으로 진행된다면,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대안관광(alternative tourism)은 소규모로 다양한 목적으로 진행되며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즐기고, 희귀한 생태계를 체험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관광형태임.
- 현재 생태관광(eco-tourism), 녹색관광(green tourism), 농업관광, 농어촌관광 등 다양한 종류의 대안관광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대안관광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 이들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그림 3-5〉 현대관광의 패러다임 변화

(1) 생태관광(Eco-tourism)

- 생태관광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1965년 Hetzer가 ‘Links’라는 잡지에 관광이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ecological tourism’을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있음(환경부, 2002).
- 생태관광개념을 규정하고 용어화한 사람은 1983년 멕시코 도시개발생태부 기술표준국장이자 환경단체 ‘PRONATURA’의 회장을 겸임하고 있던 Ceballos-Lascurain임. 그는 당시 유가타 반도 북부에 위치한 홍학 번식지

- 개발을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면서 습지를 보전하여 이를 활용한 관광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생태관광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음(환경부, 2002).
- 이후 생태관광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주요 발표된 개념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 3-2>와 같음.
 - 이상의 생태관광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면,
 - 생태관광의 가치는 타 관광과 다르게 자연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인식을 기본으로 함.
 - 생태관광의 영역은 훼손되지 않은 자연지역이나 희귀한 생태계를 유지

<표 3-2> 기존 연구에 나타난 생태관광의 정의

생태관광의 영역을 '자연지역'으로 언급
- Ceballos-Lascurain(1987), Kutay(1989), Boo(1990), The Ecotourism Society(1991), Valentine(1991), Figgis(1992), Young(1992), Var(1992), Wall(1994) 등은 생태관광을 자연지역, 혹은 비교적 훼손되지 않은 자연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으로 설명 - Figgis(1992)는 오지 혹은 자연지역으로 설명함
'생태관광=자연관광'으로 언급
- Fennell & Eagle(1989), Kinnaird & O'Brien(1996)은 정의에서 생태관광 혹은 자연관광으로 언급하며 이 둘을 대등하게 설명
생태관광 대상 및 활동에 대한 언급
- 비교적 훼손되지 않은 지역의 문화, 경관, 야생동식물 등을 생태관광의 대상으로 언급함: Ceballos-Lascurain(1987), Var(1992), Boo(1990) - 위기에 처한 환경과 위협받는 종, 희귀한 동식물, 희소하거나 아름다운 생태계로 설명함: Davis(1989) Wall(1994), Cater(1995) - 구체적인 활동에 관한 언급으로 Fennell & Eagle(1989)은 생태관광의 예로 새나 고래 관찰, 야생식물 촬영을, Agardy(1993)는 야생동물 관찰, 생태환경 연구, 스쿠버다이빙과 같은 활동을 예시로 제시함 - 관광지역의 문화역사에 대한 언급: young(1992), Williams(1992), Blangy & Wood(1993)
정의 속에 나타난 생태관광의 목적
- 관광객 차원 환경체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과 문화에 대한 감상과 학습: Butler(1989), The Ecotourism Society(1991), The Ecotourism Society of australia(1992), Figgis(1992), Var(1992), Cater(1995) - 관광지역 차원 관광지의 경제·사회·생태적 상황에 긍정적인 기여: Butler(1989) 지역사회의 문화와 복지를 유지하고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활동: young(1992), Cater(1995), The Ecotourism Society of Australia(1995) - 관광대상 차원 보호지역 내의 생태계 유지·확립: Fennell & Eagle(1989) 가능한 한 훼손하지 않을 것: Alder(1990)

자료: 박석희, 2000, 「생태관광의 개념에 대한 고찰」, 한국관광산업협회를 참고로 재정리

한 지역, 혹은 위기에 처한 생태계 지역으로 나눌 수 있음.

- 생태관광의 대상으로는 위와 같은 자연지역의 경관, 동식물 등의 모든 생태계를 포함하며, 해당 지역의 문화·역사를 포함하기도 함.
- 생태관광의 목표는 관광객이 자연 생태계를 감상·학습함으로써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호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임.

(2) 녹색관광(Green tourism)

- 녹색관광은 프랑스에서 관광지역을 특성에 따라 Blue Tourism(해안지역 관광), White Tourism(눈 덮인 산악지역 관광), Light Tourism(야간 관광), Green Tourism(전원지역 관광)으로 구분하는 데서 유래됨(김성진, 2002). 이는 주로 농촌의 전원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체류형·휴양형 관광을 말함.
- 일본 농림성 그린투어리즘 연구회는 그린투어리즘을 ‘풍요로운 자연을 지닌 농산어촌에서 그 지역의 자연과 문화, 사람들과 교류를 즐기는 체재형 여가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존의 단순 관광과 구분하기 위해 원어 그대로 ‘グリーンツ-リズム’으로 사용하고 있음(김성진, 2002).
- 한국관광공사(1996)는 그린투어리즘이란 ‘산업공해와 지나친 개발로 인해 푸르고 깨끗한 자연공간이 해마다 부족해짐으로 인해, 현대 도시인들의 건

〈표 3-3〉 주요 국가의 녹색관광(green tourism) 용어 정의

독일	- 농촌관광, 농업관광, 그린투어리즘 등으로 혼용 - 농촌지역의 자연환경 및 경관의 모습을 원래에 가깝게 보존하며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관광 - 농가민박 형태가 주류
프랑스	- 관광을 블루/화이트/라이트/그린투어리즘으로 세분화하여 사용 - 그린투어리즘은 녹음이 푸르른 전원지역에서 관광하는 형태를 말함 - 지역별로 다양한 숙박·체험시설 등의 부대시설 관리에 주력
영국	- 농장관광과 그린투어리즘으로 혼용 - 농업·농가의 생활, 농촌의 미래를 위해 아름답고 풍부한 환경을 보존하고 국민에게 즐거움을 줌 - 농가민박 형태가 주류
일본	- 그린투어리즘으로 사용 - 농어촌의 자연, 역사, 문화자원 보존 및 활용을 통하여 도시민과 농촌주민 간의 교류를 유도함으로써 농산어촌지역 활성화 도모

자료: 농림부, 2002,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개발모형 정립과 실용화 방안」.

강·휴식을 위해 농촌, 산림의 푸른 자연공간을 찾아나서는 전원관광'으로 설명하고 있음. 농림부(2002)는 '농산촌의 풍성하고 깨끗한 자연경관과 지역의 전통문화·생활과 상업을 매개로 하는 도시민과 농·산촌 주민 간의 체류형 교류활동'이라 정의하기도 함(정기환, 2001).

- 이상의 녹색관광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면,
 - 녹색관광은 주로 농·어·산촌의 전원공간에서 풍성하고 깨끗한 자연환경과 지역의 전통문화 및 생활을 도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하거나 체험하는, 즉 이용자와 제공자 간의 교류를 통해 양자의 웰빙 극대화를 추구하는 관광이라 정의를 내릴 수 있음.

(3) 정리

- 앞서 살펴본 대안관광의 종류를 정리해보면, '농촌관광'은 관광의 영역에 중점을 두고 '농업관광'은 관광의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 두 가지는 용어의 차이일 뿐 '녹색관광'의 개념에 포함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 '생태관광'과 '녹색관광'은 대상이 일부 공통적일 수 있지만 '녹색관광'의 경우 기본적으로 여가·휴양을 목적으로 하지만 '생태관광'은 자연보전과 학습 등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 두 가지 용어는 구별해서 쓰일 필요가 있음.
- 이후 등장한 '저탄소 관광'은 위의 대안관광을 모두 포함하며 저탄소 성장 개념과 저탄소 기술이 추가로 적용된 관광 패러다임으로서 개념이 보다 명확하고 적절한 용어임.

3. 기존 관광산업 성장모델의 한계점

- 역사적으로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할 만큼 타 산업에 비해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면서 상당한 경제 성장과 수입을 올리는 산업으로 인식되었음.

- 그러나 기후변화와 지구환경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모든 산업들이 저탄소 녹색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변화를 꾀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볼 때 관광산업 역시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으로 이러한 전 산업적인 흐름에 예외일 수 없음.
- 관광산업의 경우 주로 이동수단과 숙박시설 등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이루어지는데 UNWTO/UNEP/WMO가 2008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관광산업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5%를 차지함.
 - 아래 <표 3-4>는 2005년 한 해 동안 세계 관광산업이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을 측정한 결과로 관광산업을 교통, 숙박, 관광활동의 세 분야로 나누어 볼 때 항공 교통을 포함한 교통 분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약 75.4%로 대부분을 차지함.
 - 숙박시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체 관광산업 배출량의 21%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광활동에서 배출되는 양은 약 3.7%인 것으로 조사됨.
- 관광산업은 더 이상 굴뚝 없는 청정공장이 아니며 세계적인 흐름과 타 산업들의 흐름에 맞추어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산업으로의 변모할 필요성이 있음.

〈표 3-4〉 관광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구분	CO ₂ (Mt)	관광산업 내 비율(%)
항공	515	39.6
자동차	420	32.3
기타 운송수단	45	3.5
숙박	274	21.0
관광활동	48	3.7
관광산업 계	1,302	100.0
전체 계	26,400	
비율 (%)	4.9	

자료: UNWTO, 2008, "Climate Change and Tourism - Responding to Global Challenges".

제2절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진화

1. 저탄소 녹색성장 이슈

1)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적 논의

-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1988년 UN총회 결의에 따라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을 설치하였음.
-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 채택을 시작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 현재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1)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기후변화협약의 목표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것임.
- 기후변화협약 체결국은 염화플루오린화탄소(CFC)를 제외한 모든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제거량을 조사하여 이를 협상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국가계획 작성의 의무가 있음.

(2)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 1997년 제3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의무이행 대상국을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총 38개국으로 하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음.
- 이는 2008~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을 기본으로 각국의 감축 목표량을 -8~+10%로 차별화하였고 1990년 이후의 토지 이용변화와 산림에 의한 온실가스 제거량을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량에 포함시키도록 함.

-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 이행 시 신축성을 허용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 (Emission Trading),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의 이른바 교토메커니즘을 도입함.

92년 6월 : 리우환경회의	… …	기후변화협약 채택
94년 3월	… …	기후변화협약 발효
95년 3월 : 제1차 당사국총회	… …	2000년 이후 감축논의 시작
97년 12월 : 제3차 당사국총회	… …	교토의정서 채택
01년 12월 : 제7차 당사국총회	… …	교토의정서 이행방안 채택
04년 12월 : 제10차 당사국총회	… …	교토체제 이후 대한 논의 준비
05년 2월	… …	교토의정서 발효
05년 11월 : 제11차 당사국총회	… …	교토체제 이후에 대한 논의
06년 11월 : 제12차 당사국총회	… …	2012년 이후에 대한 본격 논의
07년 12월 : 제13차 당사국총회	… …	발리 로드맵 채택

〈그림 3-6〉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주요 진행 경과

(3) 부에노스아이레스 행동계획(Buenos Aires Plan of Action)

- 1998년 제4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의 신축적인 제도운용과 관련한 작업을 2000년까지 완료한다는 내용의 행동계획을 채택함.

(4) 포스트 교토의정서(Post Kyoto protoc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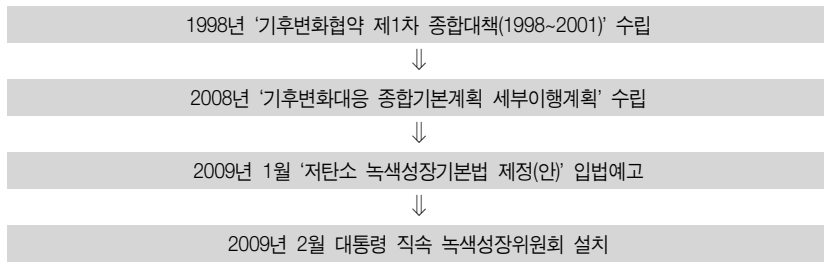
- 2005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1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서는 교토의정서 대상기간(2008~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체제를 의논하고 포스트 교토의정서를 채택함.
- 이번 논의로 기존 39개 선진국들에게 주어졌던 감축의무가 선진국과 개도국을 모두 포함해 확대되었고 한국 역시 감축의무 대상국에 포함됨.

(5) 발리로드맵(Bali Load map)

- 2007년 제13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의 계획이나 일정의 구상도로 ‘발리 로드맵’을 채택함.
- 온실가스의 감소는 선진국의 경우 수치화된 목표 없이 ‘상당히 감축(Deep cuts)한다’는 목표로 설정되어 있으며, 개발도상국은 측정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서의 감축을 추구하도록 함.
- 발리로드맵으로 미국, 중국, 인도 등과 함께 한국도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국에 포함되었고, 새 기후변화협약은 2년간의 협상을 거쳐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 총회에서 채택되어, 2013년부터 발효될 예정임.

2)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국내 논의

- 현재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국이 아니지만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가율이 매우 높은 국가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2013년부터 발효되는 포스트 교토의정서체제에서는 우리나라가 감축의무 대상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1998년 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중장기 대응 전략을 준비하고 있음.
 -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 경제성장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고 2009년 2월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이러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음.



〈그림 3-7〉 기후변화에 관한 국내 논의

2. 저탄소 관광 이슈

1) 저탄소 관광에 대한 국제적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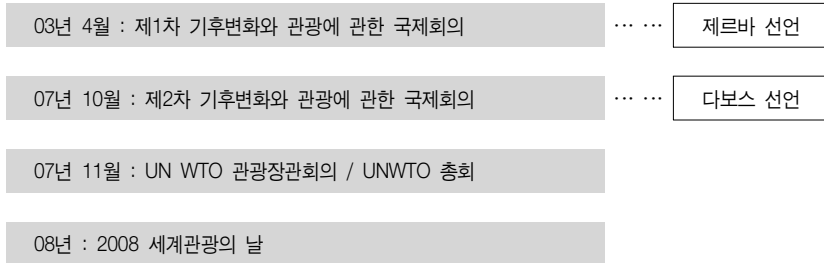
-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적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관광분야에서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1995년 세계관광기구(UNWTO)와 유네스코 등이 “지속가능한 관광 헌장”을 제정하면서 관광개발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작됨.

(1) 제르바 선언(Djerba Declaration)

- 세계관광기구(UNWTO), 유엔환경계획(UNEP), 유네스코 등은 2003년 4월 튀니지 제르바에서 제1차 기후변화와 관광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제르바 선언(Djerba Declaration)을 결의함.
 - 이는 전 세계의 정부, 관광업계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가 관광에 미치는 영향과 관광산업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모색하는 첫 번째 회의로 제르바 회의 이후 UNWTO는 세계기상기구(WMO)와 공동으로 전문가 팀을 결성하여 관광과 기후변화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심층 연구를 진행하기 시작함.

(2) 다보스 선언(Davos Declaration)

- UNWTO, UNEP, WMO는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기후변화의 영향과 적응, 관광 수요 패턴 변화, 관광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완화 방안 등을 포함한 관광과 기후변화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함.



〈그림 3-8〉 기후변화와 관광에 관한 국제적 논의

- 2007년 다보스 선언(Davos Declaration)을 채택하고 관광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완화, 현재 및 미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신기술 개발, 저개발국 지원을 위한 자원 확보 등을 위해 회원국의 액션플랜 수립을 촉구함.

(3) UNWTO 관광장관회의 / UNWTO 총회

- 2007년 11월에 열린 UNWTO 관광장관회의에서는 다보스 선언을 재차 강조하였고, 2008년부터는 기후변화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추진하기로 결정함.

(4) 세계 관광의 날(World Tourism Day)

- 2008년 세계 관광의 날 의제를 ‘기후변화의 도전에 대한 관광의 대응 (Tourism Responding to the Challenge of Climate Change)’으로 선정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며 기후변화와 관광에 대한 전 세계의 인식 증진과 과제 발굴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국제회의를 진행함.

2) 저탄소 관광에 대한 국내 논의

- 우리나라 관광자원 개발은 여전히 보전과의 대립 구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하지만 국내외에서 계속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과 논의로 인해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 경제성장 비전과 함께 2008년 들어서 저탄소 관광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나오고 있음.

(1)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문화전략

-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에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적용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문화전략’을 발표함.
-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녹색 생활문화 기반 조성, 녹색관광산업 육성, 미디어와 교육을 통한 녹색 문화사회로의 전환, 저탄소 스포츠 활동 확산, 그린 코리아로의 국가이미지 제고 등 6대 전략과제를 수립하고 체계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함.

〈표 3-5〉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문화전략

녹색 생활문화 기반조성	녹색 여가문화의 확산 및 정착화	-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녹색여가문화운동 전개 - 전통문화콘텐츠의 환경친화적 가치 재인식 및 활용 대책
	환경친화적 도시공간문화 형성	- 탄소제로 놀이터 조성 - 일반 숙박시설의 관광호텔 전환 시 그린디자인 시범적 지원
	환경친화적 지역재생의 거점화	- 구 서울역사, 당간리 화력발전소의 복합문화공간 조성 - 근대산업시대 유산의 문화예술창작공간화
	에너지 절감형 문화·체육·관광시설 모델 개발 보급	- 도서관, 공연장, 박물관 등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의 환경친화적 설계 확산 - 친환경 레저도시 개발 매뉴얼 제작
녹색문화 사회전환	녹색 문화교육 확대	- 환경과 문화예술이 결합한 문화예술교육 확대
	기후변화 주제 게임 및 콘텐츠 제작 지원	- 지구를 구하자 기능성 게임 개발 - UCC 공모전, 뉴미디어콘텐츠 기획안 공모전 개최
	환경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 전시, 공연, 예술 콘텐츠를 활용한 기후변화 인식 제고 - 부산국제영화제 등 축제행사에 탄소중립 프로그램 도입 - 예술, 공연, 콘서트 등 환경문화이벤트 지원

〈표 계속〉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문화전략

자발적 탄소제로 업무관리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 에너지 절감 체험 등을 통한 기후변화 인식 제고 및 업무 적용 방안 모색
	개인 업무별 탄소배출 저감 목표 수립	-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의 솔선수범
	녹색 파트너십 구축	- 문광부-환경부 간 업무협약 체결 방안 - 지역 환경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문화사업과 관광협회, 시도 체육회 등 유관기관 녹색 파트너십 형성
저탄소 스포츠 활동확산	저탄소 스포츠 활동 여건 조성	- 자전거 생활문화 공간 확충 - 운동기구를 활용한 발전기 시설 도입
	환경 친화적 체육대회 개최	- 주요 국제대회의 친환경적 준비·운영 - 전국체전 등 국내 대회 개최 시 친환경 녹색체전 추진
녹색관광 산업육성	탄소제로 도시, 생태마을 등 녹색 관광개발 추진	-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의 탄소제로 생태환경 시범 도시화 - 환경과 문화가 조화된 생태문화마을 모델 개발 - 아시아 생태문화 대표 도시 육성 - 재생에너지 단지 연계 관광자원 개발 - 슬로시티 지정확대로 녹색관광상품 개발 - 도보 및 자전거 여행 프로그램 개발
	녹색 관광산업 도입 및 인센티브 지원 확대	- 관광시설물의 녹색인증제 도입 - 여행상품의 탄소중립프로그램 도입 및 지원 - 관광시설의 탄소중립형 전환 지원 - 기후변화에 대응한 관광자원 개발 환경기준 마련
국가 브랜드 마케팅	국내외 그린코리아 이미지 확산	- 온실가스 줄이기 국민인식 제고 및 정부정책 홍보 - 녹색문화 사회 정착을 위한 언론사 공동 프로젝트 추진 - 해외 그린코리아 홍보
	외신 대상 전략적 홍보 추진	- 상주외신 대상 기사소재 적극 제공 - 방한외신 대상 취재 지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미래문화기획단, 2008, 「저탄소 녹색 성장 실현을 위한 문화전략」.

(2) 저탄소 관광자원 개발 가이드라인

- 문화관광부는 2009년 3월 관광자원 개발에 있어 환경친화적 개발, 지속가
능한 관광개발 등의 기존 과제들을 포함하고 앞으로의 관광개발지침을 제
공할 ‘저탄소 관광자원 개발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이 가이드라인은 관광자원 개발에 있어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온상승,
물 부족, 생태계 변화, 기상재해 등 기후변화의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도
록 하는 사전 예방의 원칙에 따라 작성됨.

〈표 3-6〉 저탄소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

사업추진단계		내 용
입지 선정		- 자연 및 역사문화 보존지역 입지 제한 - 생태녹지축, 지형 및 지세, 지역교통체계, 신재생에너지 도입여건 고려 - 자연재해 발생가능성, 개발제한요건,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고려
계획 수립	토지 이용	- 자연순응형 계획 수립 - 원형보존 녹지 설정, 아름다운 경관 조성 - 집약적 공간구조 형성, 녹지체계 구축 - 비오톱 및 생태이동 통로 조성 - 절성토 최소화 및 생태복원 - 탄소저감 식재계획 마련 - 일조량, 채광 등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 - 바람통로 확보 - 토지적성평가 도입 용도배분
	교통 동선	- 친환경 도로망 구축, 대중교통 이용 제고 - 자전거도로 시스템 구축, 보행자도로 조성 - 친환경 주차장, 무장애 이용시설 조성 -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에너지 및 자원순환	- 신재생에너지 도입, 공공부문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 에너지 절약 가로시설물, 에너지 절약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설치 -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탄소배출 관리계획 작성 - 환경친화적 하수처리, 우수 활용, 중수도 도입, 투수성 포장 확대 - 폐기물 재활용 등
	순환경제	- 장기체류 관광 유도 - 지역 농특산물 활용 - 지역주민 참여 확대 - 문화관광 녹색일자리 창출 - 지역주민 고용 - 자연산업 연계성 강화 - 어메니티 자원의 활용
공사 시행		- 공정단축 저탄소공법 확대 - 저탄소 자재 사용, 건설 자재·폐기물 재활용 - 저탄소 건설장비,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 표토의 보전 및 재활용
운영 관리		- 온실가스 감축 매뉴얼 작성 - 온실가스 저감 자발적 협약 체결 유도 - 저탄소 녹색행사 개최, 환경경영 유도 - 기후변화 대응 교육훈련 프로그램 실시 - 민간사업자 인센티브 시행 - 친환경 관광활동 수칙 제정 - 탄소배출 상쇄프로그램 도입 - 기상변화 영향 모니터링 및 대책 수립 - 기상재해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09, 「저탄소 관광자원개발 가이드라인」.

—사업 추진 단계를 입지선정, 계획수립, 공사시행, 운영관리 등의 네 가지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원칙과 최소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3) 세계관광기구(UNWTO)의 저탄소 관광 가이드라인

- 세계관광기구는 관광산업에서 관광수요증가에 따른 배출가스 증가와 지구 기후 안정화나 경제적 성장을 통한 삶의 안정화라는 서로 모순적인 목표들을 동시에 고려하되 이들 간 적절한 정책적 균형을 요구하고 있음.
- 탄소저감은 기술발전, 환경관리, 경제적 조치, 그리고 행동변화 등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달성 가능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요구됨.
- 그러나 아래와 같은 탄소 배출저감 방안은 저탄소 시대 이전의 오염저감과 같은 과거 대책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과도기적인 지침으로 볼 수 있음.

〈표 3-7〉 UNWTO가 제시한 주요 온실가스 저감방안

에너지 절약	- 대중교통 이용 확대 등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요구 - 화상회의 활성화 등 원거리 이동을 줄이는 비즈니스 활동
에너지 효율의 증대	-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 및 적용
신재생에너지 사용의 증대	- 탄소 발생이 없거나 적은 지속가능한 연료 사용 - 바이오에너지, 수력, 풍력, 태양 등
CO ₂ 의 포집 처리	- 탄소를 포집하여 자연 지형지물을 이용한 영구 격리 - 친환경 관광은 바로 그러한 자연지형지물 보전에 기여

(1) 관광교통 분야

- 관광산업이 배출하는 전체 CO₂량의 약 75%가 교통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항공교통과 승용차의 배출량이 대부분을 차지함.
- UNWTO는 모든 교통수단의 연료 효율성을 높이고 철도나 해운 등을 전환 교통(modal shift)으로 이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표 3-8〉 관광교통 분야 온실가스 저감방안

교통분야	항공교통	- 첨단기술을 갖춘 연령이 낮은 항공기를 유지 - 항공기 탑승률을 최소 80% 이상을 유지 - 기내식 및 음료 제공 등을 최소화하여 무게 줄이기 - 좀 더 효율적인 항공노선 선택 - 항공기는 최대 승객을 수송할 수 있도록 밀도를 높임 - 항공사는 배출권 교역에서 지지적이어야 할 것 - 항공사는 마일리지 누적보다는 다른 보상을 통한 보상을 고려 - 항공사는 다른 육상교통 등 저탄소 분야에도 경제적 활동을 넓힘
	승용차	- 저탄소 배출 또는 저배출 승용차의 사용을 장려 - SUV차량 운행을 자제 - 오래된 승용차를 교체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임
	기차/전세버스	- 철로 등 기반시설을 교체 - 탄소 중립형 운행을 달성

(2) 관광숙박시설 분야

- 숙박시설 분야는 교통 분야 다음으로 많은 CO₂를 배출하는 영역으로 전체 관광산업 CO₂배출량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음.
- 이 분야의 경우 에너지 사용 감축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일찍이 선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참여하고 있음.

〈표 3-9〉 관광숙박 분야 온실가스 저감방안

숙박 분야	- 환경적 관리시스템을 수립 - 에너지 사용을 줄임 - 재생 가능한 에너지만 사용 - 재료의 사용을 줄임 - 폐기물 리사이클링 - 호텔 등을 지을 때 재생에너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건축하고 저탄소, 재활용 재료, 첨단 절연제 등 사용 - 녹색 활동에 대해 홍보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업체의 이미지 개선에 긍정적 작용을 할 것
-------	---

(3) 소비자(관광객)

- 관광객들의 상품 선택은 대부분 마케팅에 의존하게 되므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환경변화 등을 이용해 홍보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파괴의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움과 동시에 관광 행동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표 3-10〉 관광 소비자의 실천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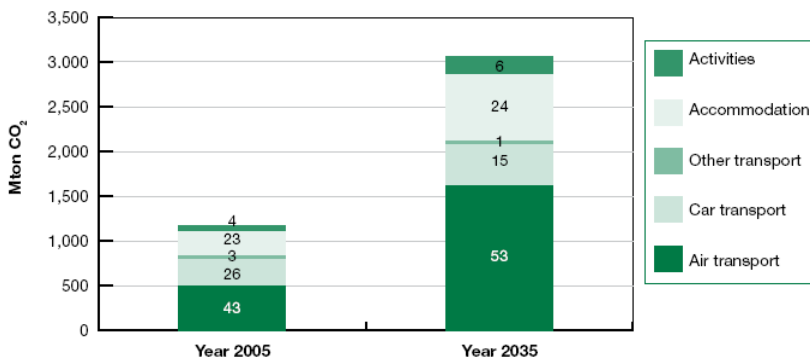
소비자	- 여행횟수를 가급적 줄이고 체류기간을 늘림 - 항공 여행은 가급적 최소화 - 친환경 경영을 하는 항공사 등을 이용 - 자발적 탄소 저감에 동참 - 탄소표시제를 실시하거나 지역에 기여하는 여행사의 상품을 구매 - 인증된 목적지 또는 숙박시설을 이용
-----	---

3. 새로운 저탄소 관광의 대두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탄소 성장에 관한 세계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관광에 있어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파괴 문제는 이제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으로 자리 잡고 있음.
-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안관광은 환경친화적이지만 소비자로 하여금 환경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단순히 탄소 배출을 줄이는 차원의 소극적인 대응 방안임.

1) 기후변화의 가속화와 이에 따른 잠재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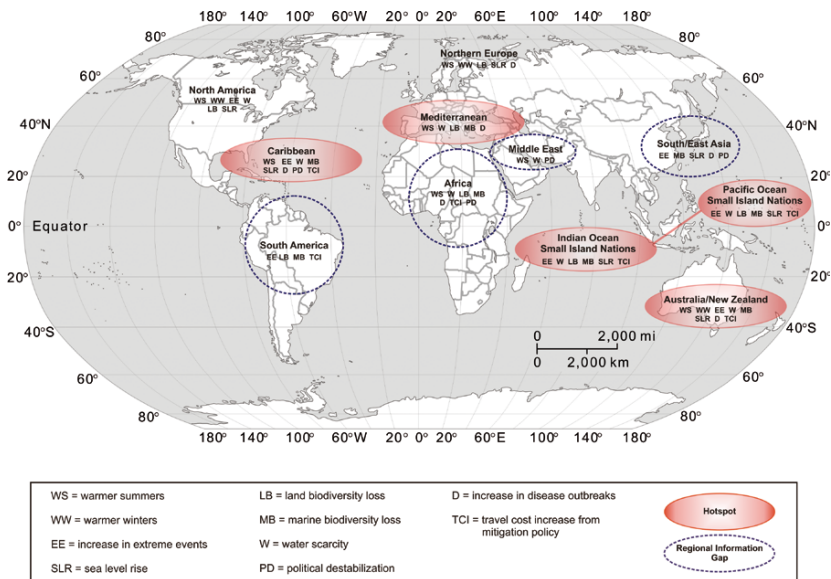
- <그림 3-9>는 전 세계 관광산업이 2020년까지 연 평균 4%의 성장을 할 것



자료: UNWTO, 2008, "Climate Change and Tourism - Responding to Global Challenges".

〈그림 3-9〉 UNWTO의 'business-as-usual' 시나리오

- 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예측한 UNWTO의 ‘business -as-usual’ 시나리오임.
- 2035년까지 전 세계 관광분야에서 배출하는 CO₂의 양은 2005년의 161%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 이에 따른 기후변화는 현재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전 지구적 환경파괴도 더욱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임.
-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인 관광환경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됨.
- UNWTO는 기온변화에 의한 영향으로 따뜻한 여름과 겨울, 극단적 사건의 증가, 해수면 상승, 육상과 해상의 생물 다양성 감소(생태계 변화), 물 부족, 정치적 불안정, 질병 발생의 증가, 이주 정책에 의한 관광비용의 증가 등을 들고 있으며 기후변화 영향을 받는 관광목적지는 <그림 3-10>과 같은 지리적 분포를 보임.
- 기후변화가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보는 관점에 따라 피해를 주기도 하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함.



자료: UNWTO, 2008, "Climate Change and Tourism - Responding to Global Challenges".

<그림 3-10> 기후변화에 영향받는 주요 관광 목적지의 지리적 분포

- 예를 들어 지구온난화로 인해 한반도의 연평균기온이 상승한다면 스키장은 영업일수 감소로 피해를 입지만 남해안 지역은 아열대성 기후로 휴양지로서의 매력성이 높아져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
- 따라서 모든 관광산업과 관광목적지는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화의 성격을 이해하고 관광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잡는 것도 기후변화시대에 적응해나가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임.
- 또한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탄소 저감 차원의 대응에서 벗어나 관광산업에서의 탄소 발생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탄소 제로’ 차원의 새로운 대응 전략이 필요함.

2) 저탄소 관광 개념

- 저탄소 관광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부이므로 우선 이 개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저탄소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성장 양자 간의 지속가능성, 즉 생태계 훼손과 기후변화 방지, 그리고 지구환경 복원을 통해 인류의 안녕을 지속가능하게 확보하는 경제성장 모델이자 시대 패러다임임.
- ‘저탄소 관광’은 지구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관광부문에서 소극적인 지구환경 훼손을 사후 저감하는 것이 아닌 훼손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최소화하여 개인의 웰빙을 위한 관광에서 지구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대승적인 목적을 가진 새로운 관광 형태임.
- ※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용어보다는 ‘저탄소 관광’이 보다 적절한 용어임.
- ‘저탄소 녹색성장’ 용어와는 달리 관광분야에서는 별도의 관광형태로서 녹색관광(*green tourism*)이란 용어가 이용되고 있어 ‘저탄소 관광’과는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p. 3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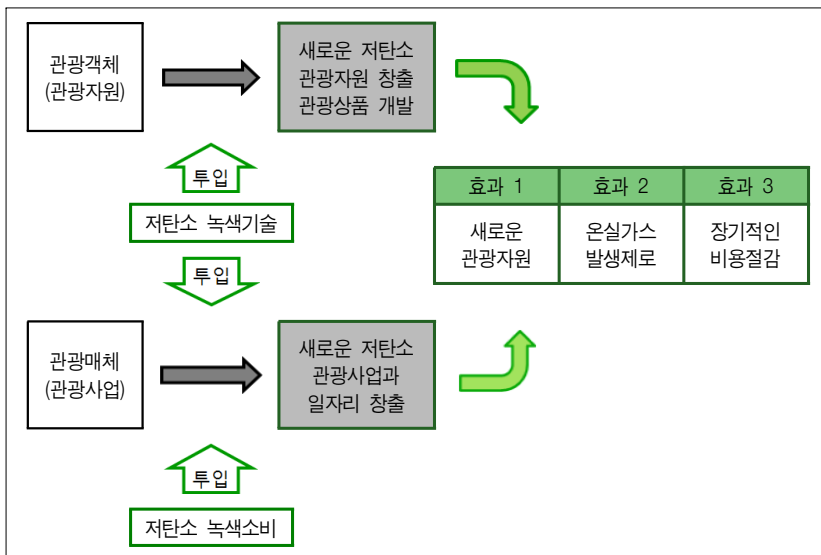
- 지금까지의 대안관광들이 단순 친환경적인 관광모델이었다면 앞으로 추구하여야 할 관광모델은 기존 관광형태 및 관광사업 모델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지구환경과 인류의 안녕을 동시에 공존시킬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의 도래를 의미함.

제3절 저탄소 관광

1. 저탄소시대의 관광산업

1) 저탄소 관광산업의 개념

- 기존의 관광산업 모델이 저탄소 관광산업 모델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각 구성요소의 변화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변화의 주축은 관광객체와 관광매체가 되어야 할 것임.



〈그림 3-11〉 저탄소 관광산업 개념

- 우선 관광자원인 객체의 경우 기존에는 자연자원이나 사회·문화·역사 자원과 같이 있는 그대로의 자원을 이용했다면 앞으로는 저탄소 녹색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을 창출해야 할 것임.
- 매체인 관광사업의 경우 기존에 관광객들이 단순히 숙식을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저탄소 녹색기술 및 저탄소 녹색경영마인드와 구조를 구축하여야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음.
- 이러한 구조의 변화는 새로운 관광자원을 창출하고 CO₂등의 온실가스 발생을 저감하며 장기적으로 관광자원 및 관광사업 시설의 운영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2) 저탄소 녹색기술의 이용

- 저탄소 녹색성장 이행에 있어 가장 절대적인 수단 중 하나는 저탄소 기술이며, 이 기술의 발전과 이용이 녹색성장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임.
-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의 대두로 저탄소 기술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국가 녹색성장 추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미래기획위원회는 “녹색성장의 기본 개념은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저해물질의 배출량을 감축시켜 환경 친화성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경제성장까지 견인하는 광의의 기술적 트렌드”라고 설명함.
- 이러한 저탄소 기술을 관광에 적극 이용하는 것이 기존 대안관광과 차별화된 저탄소 관광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1) 저탄소 녹색기술

- 최근 정부가 정의한 저탄소 녹색기술의 주요 영역을 살펴보면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 예측 기술,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 기존에

〈표 3-11〉 저탄소 녹색기술의 주요 영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예측 기술	기후변화예측 및 영향평가	기후변화 예측, 지구환경변화 영향평가, 기후변화 적응
에너지원 기술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해양에너지, 지열, 태양열, 수력, 복합·기반
	원자력/핵융합	원자력, 핵융합
	수소연료전지	수소제조, 수소저장, 연료전지
고효율화 기술	화석연료 활용성 향상 및 고효율화	석탄 액화 및 가스화, 가스 액화, 신화석연료
	수송부분 효율성 향상	자동차, 철도, 선박, 우주항공, 교통물류
	녹색국토	그린시티, 그린홈, 그린빌딩
	친환경 제조공정/소재 효율성 향상	친환경 공정 및 제품, 제조공정/소재 효율성 향상
사후처리 기술	전력 효율성 향상	LED·IT 기기, 초전도 활용·전력IT, 발전 효율성 향상, 에너지 저장
	대기오염 모니터링 및 제어	CO ₂ 포집저장처리, Non-CO ₂ 모니터링 및 처리
	수질환경	수처리, 수자원 확보
	환경복원	생태계 복원, 토양지하수 복원
무공해 산업경제 (지식기반) 육성	환경보건	위해성 평가
	CT, 소프트기반 IT, 지식서비스 등	가상현실

자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9, 「녹색기술연구개발 종합대책(안)」.

사용되던 에너지, 교통수단 등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효율화 기술, 오염된 물질이나 수질 등을 복원하는 사후처리 기술, 그리고 최첨단 IT기술 영역인 무공해 산업경제 육성 등 크게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음.

(2) 저탄소 녹색기술의 활용 방안

○예측 기술

—기후변화 예측 기술을 관광에 활용한다면 예측된 결과를 향후 관광지 입지선정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환경변화 영향 예측, 기후변화 적응 등과 관련된 기술은 중장기적인 관광지 개발 및 운영 등에 활용됨.

○에너지원 기술

-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화석연료를 대신할 저탄소 에너지원인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풍력 등과 관련된 기술의 발전은 주요 이산화탄소 배출원인 이동수단과 숙박시설 등 관광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가장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임.

○고효율화 기술

- 화석연료 활용성 고효율화, 수송부분 효율성 증대 기술 또한 관광산업 전체의 효율성 증대에 도움을 줄 것이며, 전력 효율성 향상 기술은 관광시설의 전력소비를 절감하여 에너지 절약 및 비용 절감에도 도움을 줄 것임.
- 녹색국토를 위한 그린홈, 그린빌딩 기술을 숙박시설 등의 관광시설에 적용한다면 에너지 절약뿐 아니라 관광자원으로의 활용도 또한 매우 높아질 것임.

○사후처리 기술

- 오폐수, 쓰레기 처리 기술은 관광산업 전반에 적용되어 관광산업이 친환경 산업으로 거듭나는데 도움을 줄 것임.
- 환경복원 기술은 생태계를 복원하여 관광지로 이용하거나 지나친 관광지 개발로 파괴된 환경을 복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무공해 산업경제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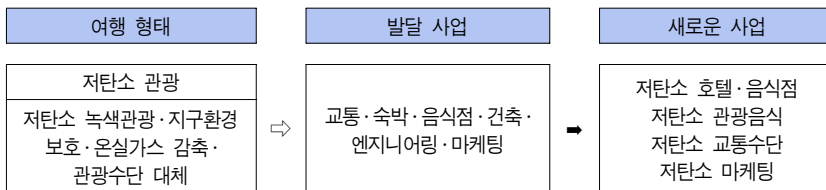
- 이동수단의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관광산업은 일상생활의 영역을 벗어난다는 정의 자체부터 친환경적이라 할 수 없음.
- 따라서 IT 등 각종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달은 가상현실 체험, 원격 화상회의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관광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도움을 줄 것임.

2. 저탄소 관광산업 신성장모델

- 저탄소 관광은 전 지구적인 환경을 생각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제시되었던 대안관광과는 차별화됨.
- 기존의 생태관광의 경우 희귀한 생태계를 학습하고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시작되었지만 해당 지역을 관광함으로써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희귀한 생태계를 해치는데 일조하게 됨.
- 새롭게 제시되는 저탄소 관광은 관광에 투입되는 모든 요소에 저탄소 기술과 저탄소 경영 등을 적용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을 창출하고 온실가스 발생을 저감하는 차원을 넘어 발생 제로를 목표로 함.

1) 저탄소 관광산업

- 저탄소 시대의 관광은 개개인의 Well-being을 고려하던 지속가능한 발전 시대와 달리 지구의 Well-being을 생각하는 관광으로 관광주체, 객체, 매체 모두의 변화가 필수적임.
- 전 지구적인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차단하는 다양한 기술적 보완이 필요함.
- 이 시기에 발달하는 관광사업은 교통수단, 숙박시설, 음식점 등 기존의 관광사업과 일치하는 것도 있지만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마케팅 등 일찍이 관광과 큰 연관성이 없었던 사업이 포함됨.



〈그림 3-12〉 저탄소 관광산업

—건축기술이나 엔지니어링의 관광산업 투입으로 기존의 평범한 숙박시설, 음식점, 교통수단 등이 저탄소 호텔, 저탄소 음식점, 저탄소 교통수단 등의 새로운 관광사업으로 발달함.

2) 저탄소 시대의 관광산업 신성장모델

○저탄소 관광산업을 이끄는 주요 요소들은 Renewable Energy, Transportation, City & Structure, Low-carbon Supply, Low- carbon Consume 등이 있음.

○Renewable Energy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재생에너지는 저탄소 관광사업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음.

—관광 시설물, 관광 숙박시설 등의 전기, 난방 등에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시키도록 함.

Renewable Energy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지열, 조력 등	저탄소 관광시설물 저탄소 관광숙박시설 저탄소 교통수단
Transportation	전기차, 수소차 등 연료전지 차량	탈화석연료 교통수단 신재생에너지 연료차
City & Structures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BIPV), 태양광 가로등 등	저탄소 숙박시설 저탄소 컨벤션센터 저탄소 공공퍼니처 등
Low-carbon Supply	저탄소기술 및 상품, 도심빌딩형농장(Vertical farm)	저탄소 생산기술/탄소라벨 저탄소 유통시스템 저탄소 마케팅
Low-carbon Consume	LOHAS(Lifestyle of health & sustainable)	저육식 및 로컬 식품 소비 탄소 포인트/캐쉬백 활용 저탄소 소비교육

〈그림 3-13〉 저탄소 관광산업 비즈니스 모델

- 화석에너지를 이용한 증기기관 개발이 18세기 산업혁명을 가져왔다면, 탈화석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은 제2의 산업혁명을 가져올 것임.

○Transportation

- 교통수단은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로 친환경 에너지나 전기 등 대체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음.
- 하이브리드카나 전기차가 대중화되기 이전이라도 관광투어버스나 관광 택시 등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City & Structure

- 건축물의 외벽과 유리창에 태양광 필름을 부착하여 건물 자체에서 전기 발전을 하는 염료감응형 태양광발전 등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 BIPV) 기술이 개발되고 있음.
- 이러한 저탄소 녹색건축 기술은 관광 숙박시설, 컨벤션센터, 극장/공연장, 경기장, 쇼핑센터 등 대형 건축물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음.

○Low-carbon Supply

- 관광산업 전반에 저탄소 녹색경영을 보편화하고 이를 홍보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음. 재생가능한 탈화석 에너지를 사용하는 저탄소 기술과 경영은 향후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 될 것임.
- 저탄소 경영은 기존 생산기술이나 시스템에 저탄소 기술을 적용하고, 이동을 최소화하는 로컬생산 및 유통 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것임.
 - 관광객들이 구입하는 관광기념품을 친환경 소재, 포장재, 운송 등을 통해 공급하고 이를 홍보에 이용
 - Carbon label, Carbon-footprint, 에너지자급자족형 도심빌딩농장(vertical farm) 등

○Low-carbon Consume

- 최근 기존의 Well-being 개념을 넘어 Lifestyle of health & sustainable(LOHAS)

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음.

—LOHAS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의 지속성장을 추구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생활스타일을 말함.

- 이들은 가격보다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생각하고 환경 파괴를 최소화한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를 보이므로 저탄소 관광상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임.

—예를 들어 저탄소 관광을 선호하는 이들은 저육식(가축의 탄소배출 저감), 로컬식품(이동 시 탄소배출 저감), 슬로푸드 등 저탄소 식품과 메뉴를 선호

—따라서 저탄소 관광을 추구하는 소비자층들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체험, 시찰, 음식 등의 관광 상품과 서비스를 새로운 관광산업 아이템으로 개발

※ 새로운 도시 저탄소 관광상품: 빌딩형 농장(vertical farm)

- '도심 빌딩형 농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의 새로운 농경 패러다임으로 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도심 빌딩에서 최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생산하는 시스템
 - 수십층 규모 고층건물의 각 층에서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농·축·수산물을 생산하는 새로운 농장 개념
- 도심 빌딩형 농장의 이점
 - 연중 작물 생산으로 단위당 생산성이 야외 농경의 10~15배 이상
 - 통제된 생육환경으로 한발, 홍수, 병충해 등 자연 재해에 의한 작물에 피해가 없음.
 - 농장 내 모든 작물은 농약이나 화학비료 없이 유기농 생산
 - 하수의 재활용 시스템으로 배출되는 하수가 없음.
 - 기존 농경지 대체가 가능하여 생태계 복원에 기여
 - 농장 내 필요한 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메탄가스 등 신재생에너지로 자급자족
 - 기존 농경법에 필요한 트랙터, 트럭 등 각종 농기계 및 중장비기 필요 없어 화석연료사용을 최소화
- 빌딩형 농장은 미래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새로운 모델
 - 빌딩형 농장을 도심 내 공장 이전지나 슬럼화된 지역에 재개발 차원에서 설치하여 새로운 생산시설로 활용하거나, 기존의 노후화된 빌딩들을 리모델링하여 재활용 등이 가능
- 빌딩형 농장은 도시 내 새로운 저탄소 관광자원이자 획기적인 관광상품화가 가능
 - 농장 내에서의 체험, 교육이 가능하고 볼거리도 다양한 관광객 유치에 기여

제4절 해외 저탄소 관광 적용 사례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에는 기후변화 완화와 기후변화 적응의 두 가지가 있음.
 -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관광지의 입지선정, 계획수립, 공사시행, 운영관리 등 관광자원 개발 사업의 전 과정에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일반적인 전략으로는 에너지 사용 감축, 에너지 사용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사용 증대, 온실가스 상쇄 및 흡수 등이 포함됨.
 - 기후변화 적응은 기후변화가 관광부문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예상하고 매뉴얼에 따라 예방, 대처, 복구하는 것
- 현재 단순 친환경이 아닌 저탄소 기술을 직접적으로 관광산업에 적용한 사례들은 아직 보편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일부 선진 도시들이 도시 내 대중 교통수단이나 건축물 등에 탄소 저감 혹은 탄소프리 기술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사례들이 등장하기 시작함.
- 이와 같이 친환경 기술이 적용된 도시 내의 저탄소 요소들이나 관광 대상들은 관광객들이 그 도시를 방문하게 하는 요인들이 됨.
 - 또한 대부분 시범적으로 추진된 저탄소 도시나 타운들은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적, 산업적 전시장이 되어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므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1. 저탄소 관광 자원화 분야

1) 저탄소 운송수단

- 전 세계 많은 도시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도시 내 저탄소 교통수단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간혹 시티투어버스 등에 직접 적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직접적인 적용이 아니라도 관광객들은 도시 내에서 저탄소 기술이 적용된 교통수단을 이용함으로써 탄소배출 저감과 녹색도시 이미지 제고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사례들이 있음.

(1) 프랑스 파리의 ‘오토리브(Autolib)’

- 프랑스 파리는 2007년에 도입하여 대성공을 거둔 ‘벨리브(Velib)’를 벤치마킹하여 무인 소형 전기자동차 대여 시스템인 ‘오토리브(Autolib)’를 준비 중임.
—이는 대여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내 어디서든 전기자동차를 빌려 이용한 후 대여소 아무 곳이나 반납하면 되는 시스템
- 파리는 ‘오토리브’가 시민들의 자동차 소유를 억제하고 운행을 줄여 대기 오염 개선은 물론 교통난 해소와 동시에 관광상품으로 활용성 또한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그림 3-14〉 파리의 벨리브와 대여전기차 오토리브(concept car)

- 프랑스는 ‘벨리브’의 도입으로 순식간에 자전거 왕국인 네덜란드 등을 제치고 자전거 관광대국으로 발돋움했던 것과 같이 ‘오토리브’가 새로운 관광명물이 될 수 있도록 파리 분위기에 어울리는 멋스러운 디자인을 개발 중임.

(2) 호주 애들레이드 ‘틴도(Tindo)’

- 호주 애들레이드는 세계 처음으로 100% 태양광으로만 움직이는 전기 버스인 틴도를 개발·운영 중임.
- 이 버스는 버스 종점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이용하여 얻어진 전기로 충전된 전지로 운행하며 귀뚜라미를 닮은 친근한 외관으로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는 애들레이드의 명물이 되었음.



〈그림 3-15〉 애들레이드 태양전기 버스

(3) 미국 샌프란시스코

-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Working Toward Sustainable Future for San Francisco’라는 목표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
- 대중교통 분야의 계획에는 대중교통 수단을 100% 전기나 바이오디젤 차량으로 교체, 도심 주차장에는 전기차 이용자를 위한 전기충전소 설치, 주요 고속화도로에는 2명 이상 탄 자동차만 진입 허용 등이 주요 내용임.

(4) 미국 포틀랜드

- 미국 서부 오리건주 포틀랜드는 자동차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Zipcar’ 서비스를 실시 중이며, 경전철보다 폭이 좁고 길이가 짧아 건물 사이를 자유롭게 다니는 지상전차 스트리트카를 운행하여 자동차 사용을 줄이고 있음.

〈표 3-12〉 도시 내 저탄소 관광교통 수단 사례

국가명	도시명	내 용
일본	도마야현	- 이산화탄소 배출량 1/10로 줄인 경전철 도입
	오카야마시	- 세계최초 자가 태양광발전 버스
프랑스	파리	- 무인 전기자동차 대여 시스템 ‘오토리브’ 시행 계획
덴마크	코펜하겐	- 시티 바이크 프로젝트 - 무인 자전거대여 시스템을 이용한 친환경 교통정책
미국	샌프란시스코	- 대중교통수단 100% 전기나 바이오디젤 차량으로 교체 -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플러그인 인프라’ 설치
	포틀랜드	- 자동차를 공동 사용하는 ‘집카(Zipcar)’ 서비스 시행 - 도심 대중교통수단인 지상전차 스트리트 카 운행 - 에어트램(air tram) 운영
호주	애들레이드	- 100% 태양열 전기 버스 ‘Tindo’ 운행

- 또한 2006년 언덕이 많은 지형적 특성을 살려 케이블카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하는 아이디어를 실천에 옮겨 에어트램(air tram)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5) 일본 오카야마시

- 일본 오카야마시는 공공 교통버스로서는 세계에서 최초로 태양전지를 탑재한 ‘solarve’를 도입
 - 이 하이브리드 버스는 지붕 태양전지로 798와트의 전력을 생산하여 차내조명, 공기청정기, 차량주변 감시 시스템에 전기를 공급



〈그림 3-16〉 세계 최초 태양광발전 전기버스(일본)

2) 건축물

최근 저탄소 녹색 개념을 관광산업에 활용하는 건축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음.

(1) 미국 피츠버그

○미국 피츠버그에는 세계 최초의 녹색 컨벤션센터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 건축물은 설계단계부터 친환경 요소를 고려하여 자연환기, 일광센서, 일산화탄소 센서, 물 재활용 시스템 등을 도입하였음.

—넓은 지붕에 태양전지 패널을 설치해 전체에너지소비를 35%나 줄였고, 물 소비를 60% 절약하였으며, 자연채광 시스템으로 전시공간의 75%를 자연채광하고, 앨러게니 강에서 올라오는 자연 기류를 빌딩의 통풍이나 냉방에 활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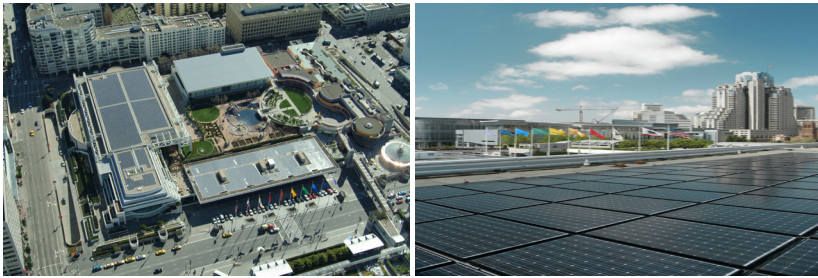
〈그림 3-17〉 미국 피츠버그의 저탄소 컨벤션센터 ‘David Lawrence Convention Center’

(2) 미국 샌프란시스코

○‘Working Toward Sustainable Future for San Francisco’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샌프란시스코의 ‘마스코니 컨벤션센터’는 미국 대형 건물 태양광 설비 중 최대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갖추고 있음.

—옥상에 축구장 3분의 2 크기인 5,330m² 면적에 자리 잡은 태양광 패널

- 5,200여개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675kW로 400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임.
- 샌프란시스코는 이러한 대형 건물뿐 아니라 일반 가정 1만 가구에도 태양광 지붕을 설치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그림 3-18〉 미국 샌프란시스코 마스코니 컨벤션센터와 지붕 태양전지 패널

(3) 중국 바오딩시와 더저우시의 BIPV 랜드마크 빌딩

- 중국 허베이성(河北省) 바오딩시의 파위밸리 인근에 2008년 건립된 덴구진장(電谷錦江)호텔은 세계최초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BIPV) 호텔임.
 - 2만 2000㎡의 호텔 외벽에 붙어 있는 3800여장의 BIPV 패널에서 연간 26만kwh 전력을 생산하며 허베이성의 랜드마크가 됨.
- 중국 산둥성(山東省)의 더저우((德州)에 2009년말 완공된 ‘르웨탄웨이파이(日月壇微排)’ 빌딩은 세계최대 태양열 복합빌딩임.
 - 총면적 7만 5천㎡ 규모에 컨벤션, 호텔, 업무 등 복합시설을 갖춘 이 빌딩은 온수, 냉난방, 전기 등 내부 필요 에너지를 태양열에너지로 공급받음.
 - 인구 500만의 더저우시는 사용하는 에너지의 90%를 태양에너지에 의존하며 ‘태양의 도시’라 할 정도로 도시 전체가 태양열 집열판과 태양전지 패널로 뒤덮여 있고, 세계에서 가장 긴 10km의 태양전지 가로등 길이 이 건물과 함께 도시의 상징임.



〈그림 3-19〉 세계최대 태양열 복합빌딩(좌)과 세계최초 전면 BIPV 호텔(우)

(4) 일본 후쿠오카

- 일본 후쿠오카의 텐진 중앙공원 맞은편에 위치한 ‘아크로스 후쿠오카’는 계단식 건물에 층층이 녹지와 나무가 심어진 지상 13층 규모의 건물임.
- 도심의 작은 산으로 보이는 이 건물은 도심 열섬현상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실제로 일본공업대학이 측정한 바에 따르면 정원에 심은 수목 아래의 온도가 여름에 콘크리트 표면의 온도보다 약 15도 이상 낮았다고 함.
- 또한 아크로스 후쿠오카는 이러한 공간을 건물 직원뿐 아니라 이곳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건물 위층 전망대에 오르면 주변 시가지와 항구까지 내려다보여 후쿠오카의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음.



〈그림 3-20〉 도심 그린빌딩 - 아크로스 후쿠오카

3) 저탄소 도시/타운

- 환경 선진국의 그린 빌리지 조성 사례를 살펴보면 그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음.
 - 하나는 화석연료가 아닌 태양광, 수소연료 등 첨단 저탄소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탄소 배출 없는 새로운 타운을 조성하는 경우
 - 다른 하나는 기존의 도시들이 오염된 환경 복구와 녹지 공간 조성 등을 통해 그린 시티로 나아가는 형태
- 전자의 대표적인 예는 일본의 팰타운이나 영국의 베드제드 등을 꼽을 수 있으며, 후자의 대표적인 예는 미국 최대 공업도시로 ‘공해도시’라는 오명을 얻었던 피츠버그, 스웨덴의 함마르비 등을 들 수 있음.

(1) 일본의 팰타운

- 일본 도쿄에서 3시간여 떨어진 군마현 오타시의 ‘팰타운’은 마을 지붕 전체가 태양광 전지판으로 이루어진 태양광 마을임.
 - 2002년 조성된 이 타운은 세대당 전력 사용량 4,800kW 중 4,000kW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의 태양광발전 마을임.
- 일본 후쿠오카 마에바루시는 세계 최대의 수소연료전지 타운임.
 - 마을 한편에 설치된 거대한 가스저장소와 두 개의 사정용 수소연료전지 장치를 이용해 수소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여 가정에 보급
 - 이 마을은 1kW급 가정용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으로 필요한 전력의 70%와 온수소비량의 80%를 충당하고 있음.



〈그림 3-21〉 세계최대 태양광발전 마을(좌)과 세계최대 수소연료전지 타운(우)

(2) 영국의 베드제드(BedZED)

- 영국의 베드제드는 세계 최초 탄소제로 도시로 탈화석에너지, 온실가스 배출제로를 실현하려는 미래 도시의 모델을 제시함.
 - 이 도시 전기소비량의 20%는 지붕의 태양열 집열판에서 생산하고 나머지 전기와 온수는 열병합발전소를 통해 충당하고 있음.
 - 지하에는 빗물 저장탱크를 설치하여 빗물을 모아 화장실 용수, 정원수로 재활용하고 있음.
 - 그 결과 인근 단지에 비해 전기 사용량은 45%, 온수용 에너지 소모량은 81%가 줄었으며 물 사용량 역시 58%가 절감됨.

(3)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는 독일의 환경수도, 혹은 ‘솔라 시티’(Solar City)라 불릴 만큼 태양에너지 이용이 매우 활발한 도시임.
 - 건물 외벽은 물론이고 축구 경기장 외벽 등에 태양광발전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 특히 태양을 따라 360도 회전하는 주택인 ‘헬리오토프(Heliotrop)’는 자체 전력 소비량의 5~6배가량을 생산하고 있음.



〈그림 3-22〉 영국 탄소제로 타운 베드제드(좌)와 독일 프라이부르크 바데노바 홈경기장 태양전지패널 지붕(우)

〈표 3-13〉 저탄소 도시 해외 사례

국가명	도시명	내 용
일본	고가	- 제로에미션 하우스: 풍력,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등 사용 가능한 모든 발전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마에바루	- 세계 최대의 수소 타운
	타마 뉴타운	- 빗물과 오수를 분리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채택, 빗물을 우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방류 - 쓰레기 진공집진, 지역냉난방, 중수도 등 친환경 기반 시설 - 자연과 녹지는 가능한 원형 그대로 유지한다는 원칙하에 개발이 이루어짐
	팰타운	- 세계 최대의 중앙 집중형 태양광발전 마을
덴마크	코펜하겐	- '친환경 교통정책'의 요람, 무인 자전거 대여 시스템을 이용한 '시티 바이크 프로젝트' - 낡은 건물 등을 리모델링할 때 자연광을 위해 유리를 사용,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바닷물과 태양열을 최대한 이용해 건물의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함
독일	프라이 부르크	- 태양광 발전의 생활화 - '헬리오트로프(Heliotrop)'라는 태양에너지 주택
스웨덴	함마르비	- 오염된 공장지대를 1992년부터 생태계회도시로 재개발 - 시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은 노면 전차, 스키텔름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은 페리를 이용하여 호수를 건너 - 버스는 하수처리 부산물인 바이오가스를 이용, 쓰레기 처리 시 발생하는 메탄가스는 난방과 발전의 연료로 쓰임
영국	베드제드	- 화석 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주거단지 - 태양열 집열판, 쓰레기를 태우는 열병합발전소를 통해 전기와 온수 해결
프랑스	라가	- 화장품회사가 화장품 제조에 필요한 식물 재료 공급을 위해 마을에 정원을 가꾸기 시작한 것이 친환경마을의 시작 - 100% 친환경 호텔: 태양광으로 전기와 온수공급, 호텔 식당 메뉴 80% 이상이 유기농, 객실 비품 모두 무공해제품이며 안내문 부착
미국	랄리	- 지역사회에 미치는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기, 물, 쓰레기 문제와 환경교육에 집중하고 있음 - '스마트 대안 통근제'를 실시,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쿠폰을 통해 20% 할인 - 에어컨 냉각탑의 물, 욕외 분수 물을 재활용, 화장실 물 절수 등
	피츠버그	- 주된 산업이던 공업이 사양길에 접어든 1950년대 이후 '공해도시'라는 오명을 얻음 - '피츠버그 문화 트러스트' 등 도시 브랜드 마케팅과 수질대기오염 극복, 공공녹지 및 도시경관조성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 녹색문화도시로 거듭남
브라질	꾸리지바	- 서울 버스시스템 개편의 모델이 된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대중교통과 녹색교통 모델 도시 - 버스를 타기 전 요금을 지불하는 시스템으로 승하차 시간을 줄이고 엔진 공회전 방지 - 자전거 도로망 완비와 '꽃의 거리'라 불리는 보행자친화공간 - 'zero waste 운동', '그들과 시원한 물 프로그램', '쓰레기 아닌 쓰레기 박물관' 등

2. 저탄소 관광 마케팅 분야

1) 저탄소 관광 홈페이지 운영

○대부분의 국가와 도시들은 공식 관광안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탄소 관광 안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도시들의 사례를 그렇지 않은 도시들과 비교해 보면 그 도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수준을 기늩할 수 있음.

—영국은 공식 관광 웹사이트인 ‘enjoyEngland.com’ 내에서 ‘Green travel in England’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스턴의 경우 그린투어리즘 웹사이트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1) 보스턴 그린투어리즘(<http://www.bostongreentourism.org/>)

○보스턴시 그린투어리즘 마케팅의 목적

—보스턴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아름다움, 천연 관광자원, 야생 레크리에이션의 기회 등을 환경친화적인 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에게 보스턴의 환경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관광산업 활동을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임.

○콘텐츠

—Find a Green Hotel

• 보스턴 그린투어리즘은 숙박시설의 에너지 효율, 폐기물처리, 그리고 실내공기질 등을 고려하여 세가지 종류의 그린호텔 인증을 부여하고 있음.

① U.S. EPA Energy Star for Hospitality Label

② U.S. Green Building Council's LEED Certification

③ EcoRooms & EcoSuites

• 이 웹사이트는 시내 26개의 ‘green-certified hotels’의 명단과 34개의

인증 가능 호텔의 명단을 게재하고 각 호텔의 홈페이지와 연결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Find a Green Restaurant

- 보스턴에는 Green Restaurant Association(GRA)에서 인증을 받은 레스토랑이 많으며, 보스턴시 자체로 아래와 같이 분류한 ‘green-certified restaurant’를 선정함.

- ① locally-grown food
- ② sustainable agriculture and aquaculture
- ③ humane animal husbandry
- ④ well-managed fisheries

- 이 웹사이트에서는 18개의 ‘green-certified restaurants’를 소개하고, 각 레스토랑의 홈페이지와 연결이 가능하도록 구성함.

—Green Convention Centers

- 그린컨벤션센터의 요소는 그린호텔과 비슷하지만, 아직 공통된 그린 인증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컨벤션센터의 경우 자신만의 환경적 행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는 센터들은 아래와 같음.
- Boston Convention Center
- Exhibition Center and the Hynes Convention Center
- Seaport World Trade Center

(2) 영국(<http://www.enjoyengland.com/>)

○영국의 ‘Green travel in England’

—영국은 공식관광웹사이트인 ‘enjoyEngland.com’ 내부에 ‘Green travel in England’라는 저탄소 관광 홍보 섹션을 운영하고 있음.

—이 섹션에서는 각종 저탄소 관광에 관심이 있는 관광객들을 위해 저탄소 관광을 위한 제안과 방법, 저탄소 쇼핑 및 숙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콘텐츠

—Reduce your carbon footprint

- ‘carbon footprint’, ‘carbon footprint offsetting’에 대한 필요성 홍보

—Green accreditation scheme

- 영국에서 친환경 저탄소 숙박시설과 관광지 등을 찾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음.

—Be a responsible traveller

- 환경을 생각하는 여행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여행객들이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여행습관 변화, 지속가능한 여행을 위한 팁 등을 소개함.

2) 저탄소 관광 인증프로그램

- 환경에 대한 관광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소비자인 여행객들의 인식도 점차 개선되어 친환경적인 관광활동이 수반하는 불편에 관대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추가적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여행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협회나 국가차원의 저탄소 관광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음.

- 미국에서는 환경보호단체와 여행업계 등이 각기 독자적인 기준에 기초하여 에코투어 인증라벨을 부여하고 있음.

- 호주는 국가적 차원에서 세계 최초로 에코투어리즘 인증 프로그램(National Ecotourism Accreditation Program; NEAP)을 실시하고 있음.

—이는 국제적인 에코투어리즘의 표준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음.

—호주의 에코투어리즘 인증은 조직 차원이 아닌 제품 차원, 즉 투어, 여행지, 숙박시설 등에 대해 경제적 지속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세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함.

—이러한 인증은 고객으로부터의 피드백과 참고인에 의한 평가과정 등을 토대로 3년마다 갱신해야 함.

〈표 3-14〉 호주의 에코투어리즘 인증 기준

기준	여행상품의 원칙
경제적 지속가능성	비즈니스 경영 및 운영계획
	비즈니스 윤리
	책임 있는 마케팅
	고객 만족
환경적 지속가능성	자연지역의 강조
	환경적 지속가능성
	지도 및 교육
	보전에의 기여
사회적 지속가능성	지역 커뮤니티와의 협력
	문화적 관심 및 반응

제4장 정책적 제언



제 4 장

정책적 제언

□ 저탄소 관광의 조속한 산업화 추진

- 저탄소 관광은 단순 개념이나 슬로건이 아닌 현실 세계나 일상생활에 실제 적용하는 단계에 이미 진입
 - 저탄소 관광시장은 아직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단계가 아닌 블루오션 시장임.
 - 전자통신산업과 같은 첨단산업 및 새로운 시장의 초기 선점이 매우 중요한 것은 그간 산업화 과정에서 이미 학습되었으므로 새로이 열리는 저탄소 관광산업 시장에서 재빠른 움직임으로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가 글로벌 선도도시로서의 이미지와 호칭을 얻기 위해서는 저탄소 도시계획 및 관리적인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저탄소 관광 자원화 및 상품화를 추진하는 선도적인 도시 마케팅 노력이 요구됨.
 - 저탄소 관광시장은 초기 공공부문의 이니셔티브와 지원이 중요함.

□ 저탄소 관광의 산업화를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

-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패러다임은 이제 따라가야 하는지 검토하는 단계를 넘어 누가 먼저 치고 나가 관련 시장을 선점하느냐에 달려 있음.

- 때문에 사업성이라는 굴레 때문에 초기 투자를 꺼리는 민간보다는 공공 부문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자와 정책적, 제도적, 재정적 선도 노력이 요구됨.
- 저탄소 기술 적용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기준 마련
 - 향후 저탄소 적용 사례를 기존 에너지 절감률과 신재생에너지로의 대체율로 구분하여 전자보다는 후자에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존 화석에너지나 비환경적인 에너지 소비를 조기에 청산하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저탄소 기술 적용 사업체에 재산세나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는 기준을 마련할 때 관광특구나 외국관광객 이용시설들에는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관광사업체들이 저탄소 사업에 참여하도록 조기에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관광객 이용시설들을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BIPV), 풍력, 지열 등 저탄소 기술을 적용하는 ‘저탄소 건물’로 신축 및 개축 유도
 - 개축하기엔 내구연한이 많이 남아 있는 건물들을 저탄소 건물로 개축할 경우 허가 요건을 완화해 주고 소요 비용에 상응하는 증축(용적율 상향 등) 허용 등으로 사업성을 올려주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필요함.
- 저탄소 관광상품 및 서비스 구입에 따른 탄소 포인트/캐시백 제도 도입 필요
 - 이를 위해 우선 해외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소라벨 혹은 탄소 Foot-print 제도 등을 시범적으로 관광사업체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탄소배출 제로 교통수단 보급 방안 마련
 - 전기차나 연료전지 차량 구매 시 정부의 인센티브외에 서울시 차원에서 도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하여야 함.
 - 또한 노상 운행이 가능한 전기차 시대를 조기에 열기 위해 가장 시급한 충전인프라 확충이 필요함.
 - 서울시의 경우 공공기관이나 서울시내 공영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충전시스템을 설치하여 전기차 전용 주차공간을 기존 차량에 우선하여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향후 파리의 오토리브와 같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공용 전기차 렌트 사업도 검토해볼 수 있음.
- 전기버스나 태양광버스 등 배출가스 없는 대중교통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용자들에게 탄소포인트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향후 이 포인트를 시민들이 모아서 더 많은 차량 구입을 위해 기부하는 캠페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청정 교통수단 확대는 고품격 도시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알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

□ 저탄소 관광산업 활성화와 도시 마케팅

-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BIPV), 지열, 풍력 등을 이용하는 관광호텔이나 관광음식점, 혹은 대체에너지를 이용하는 교통수단들은 관광객들에게 저탄소 관광상품이자 도시 홍보거리
- 현재 기술개발이 거의 상용화단계에 와 있는 BIPV는 도시에 가장 적합한 기술로 수많은 건물 자체가 태양광 발전소로 바뀔 수 있는 도심의 노다지가 될 수 있음.
- 만일 63빌딩 외벽에 박막형 태양전지를, 유리창에 염료감응형 투명 필름 태양전지를 부착하여 온 건물에서 태양발전을 한다면 그 자체가 도시의 관광 명물이자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음.
- 또한 최첨단 저탄소 기술을 적용하여 도심 빌딩형 농장(vertical farm)을 건립하여 저탄소 먹거리 생산시설에 대한 체험 및 교육 관광 자원화하는 것도 관광객 유치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임.
- 향후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초고층 빌딩들을 과거와 같은 에너지 킬러가 아닌 바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첨단 빌딩으로 계획하여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이 필요함(컨벤션센터 건립 계획 포함).

- 특히 대체에너지를 이용하는 관광시설의 경우 관광객들에게 그 자체로서 볼거리와 체험하는 관광매력을 제공
 - 기존 관광호텔들이 영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 선에서 첨단 대체에너지 생산 빌딩으로 개조하는 프로젝트를 서울시와 협력하여 추진할 경우 관광객 유치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같은 저탄소 및 대체에너지 기술을 적용한 랜드마크, 호텔, 교통수단 등이 많아질수록 그 도시의 국제적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관련 교육 및 시찰 관광 프로그램 개발로 관광객 유치가 가능함.
- 서울시 공식 관광안내 인터넷 홈페이지에 ‘서울의 저탄소 녹색 투어’ 안내 섹션을 구축하여 홍보
 - 서울의 저탄소 녹색투어 인터넷 안내는 시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각종 친환경 장소, 저탄소 기술 적용 대상들을 실제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저탄소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비용절감 효과가 큰 저탄소 녹색기술을 부문별로 조기에 적용 하도록 중앙정부나 시정부에서 적극 유도
 - 저탄소 녹색기술을 적용한 호텔, 컨벤션센터, 리조트, 교통수단 등 관광객 이용시설들은 초기 비용이 매우 커서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주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저탄소 녹색관광 투자사업은 초기 투자외에 운영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투자비 회수기간이 다른 투자사업에 비해 상당히 단축될 수 있는 특성이자 장점이 있음.
 - 특히 이 사업은 향후 손익분기점 이후에는 소요되는 원가나 운영비가 매우 작거나 없어 대폭 가격인하 여건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수요를 한층 더 창출시켜 관광객 이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정부는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저탄소 관광산업화를 위한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음.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9, “녹색기술연구개발 종합대책(안)”.
- 김덕기 · 크리스최 · 박종구 · 조창현, 2009, “저탄소 녹색성장과 문화관광”, 『계간 관광정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성진, 2002, “생태관광 진흥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농림부, 2002,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개발모형 정립과 실용화 방안”.
- 문화체육관광부, 2009, “저탄소 관광자원개발 가이드라인”.
- _____, 2008,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문화전략”.
- 박석희, 2000, “생태관광의 개념에 대한 고찰”, 『Tourism Research』, 한국관광산업 협회, 제14권, pp. 67-89.
- 정기환, 2001,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정책의 발전방향”, 『농촌경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24권, 제2호, pp. 139-162.
- 최영국 · 임상연, 2005, “생태관광 활성화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환경부, 2002, “생태관광 지침개발 및 활성화방안”.
- UNWTO, 2008, “Climate Change and Tourism - Responding to Global Challenges”.
- WEF, 2009, “Towards a Low Carbon Travel&Tourism Sector”.

영문 요약 (Abstract)



A New Growth Model of Tourism for Low-carbon Green Growth

Ki-Yong Keum · Wee-Yeun Seo

In 1990s, environmentalism began to spread worldwide on the basis of the concept of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was adopted in the 1992 Rio Earth Summit. After two decades since then, the world today are faced with an urgent situation to cope with the problem of global warming, which was come up by the production-centered growth model (productivism) and would let human beings in peril beyond the threat to eco-system. Furthermore, recent global economic crisis brought about by the United States in late 2008 triggered a transformation of existing mainstream economic growth paradigm. As a result, a new growth paradigm, the low-carbon green growth, is on its way of expanding. This trend demonstrates the change of world's concern about the global environmental problem to a comprehensive, progressive, and basical approach.

Tourism has been told as an environmentally-friendly clean industry without a chimney in the perspective of neo-classical supply-driven growth mode. Today, however, the fame must be faded away in light of the new low-carbon green growth mode. In 2008, according to a report of UNWTO, the amount of greenhouse gas (CO₂) emission in tourism sector is about 5% of the total amount of global emission. This portion of tourism sector is expected to be larger. Henceforth, in the low-carbon paradigm, an industry discharging hazardous articles against the earth's environment is supposed to be withdrawn in the earth. In this sense, tourism will secure its sustainable competitiveness only if it shifts to low carbon tourism as a new green growth model.

The current low carbon tourism market is a blue ocean market because, although the concepts and elements of low carbon tourism already began to be industrialized and tourism resources, that is not pervasive yet. Thus, as other cutting-edge industry has showed, an prior occupation of such early low carbon tourism market is very important.

To industrialize and foster the low carbon tourism and acquire competitiveness from it, Seoul government needs a systematic and concrete masterplan for the low carbon tourism and should provide policy supports for it as a key engine for future growth. The low carbon tourism industry needs more early funds than existing tourism industry does. However, the new tourism industry will be arrived at a break-even point faster than the older one because the former's operation costs is much less like the electric vehicles. This means public and private investors can commit bold funding for the blue ocean industry with a long-term perspective. The low carbon tourism industry can provide tourists with cheaper goods and services and, more importatly, customer's pride.

Table of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Objectives
2. Scope and Methodology

Chapter 2 Socioeconomic Paradigm Change after Global Financial Crisis

1. Mainstream Economics and Economic Paradigm Changes
2. Environmentalism vs. Post-environmentalism
3. Low-carbon Green Growth and Tourism Paradigm Change

Chapter 3 Low-carbon Growth Model in Tourism Industry

1. Sustainable Tourism Industry
2. Toward a New Tourism Industry Development
3. Low-carbon Growth Model for Tourism Industry

Chapter 4 Policy Implication and Suggestions

References

시정연 2009-BR-04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의 관광산업 신성장모델

발 행 인 정 문 건

발 행 일 2009년 12월 2일

발 행 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391

전화 (02)2149-1234 팩스 (02)2149-1025

값 6,000원 ISBN 978-89-8052-745-8 9332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속합니다.